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 명 사 상 만 세 !

로동신문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175호 【루계 제26049호】 주제 107 (2018) 년 6월 24일 (일요일)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에서 혁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 전국, 전민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 대진군에 총궐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철강재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난 5월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고 더욱 분발해나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이날에 들어와 짧은 기간에 많은 량의 철강재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보내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동해의 명승지에 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서 자신들도 한몫 단단히 할 불같은 일념안고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뚫고헤치며 과감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 당, 행정일군들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 필요한 철강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펼치고있다.

이들은 불끓는 전투장에 나가 당보에 실린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을 알려주면서 생산자대중을 증산돌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철강재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드높은 열의밑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유리한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해가면서 철강재생산의 선행공정인 주체철생산공정에서부터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회전로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고 질좋은 철광석과 무원료, 미분탄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시간당 주체철생산량을 부쩍 끌어올리고있다.

또한 원료배합비률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앞선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가고있다.

강철생산을 맡은 용해공들도 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특히 1호초고전력전기로 용해공들은 한차지의 쇠물이라도 더 끓어내기 위해 모두카 두벅, 세볶의 일감을 맡아 해제끼고있다.

이들은 원료보장준비를 잘하고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전극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차지당 쇠물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원료보장부문의 로동자들은 주원료, 부원료의 선별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강철생산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해주고있다.

철강재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압연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직장의 일군들은 어려운 모퉁이마다에 어깨를 남먼저 들이밀면서 현장지휘를 전투적으로 하고있다.

로동자들은 실수률을 높이고 소재절단시간을 줄일수 있는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이면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하여 보내줄 드높은 열의를 안고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현지보도반

천내리세멘트공장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천내리세멘트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년초부터 힘찬 돌격전으로 때랄 말겨진 세멘트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보내주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정치사업부대를 들끓는 생산현장으로 옮기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참모부에서는 모든 단위들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 로력조직을 짜고들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내밀수 있게 여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공장의 그 어느 일터에서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세멘트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은 석회석분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고 채굴장관리를 잘하여 매일 많은 석회석을 생산보장하고있다.

운광직장에서는 벨트콘베아와 파쇄기를 비롯한 설비관리를 짜고들면서 생산된 원료들을 제때에 실어나르고있다.

세멘트생산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원료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원료배합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분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높이 석은 로력과 전력으로 분탄1호분쇄기를 새롭게 개조하여 세멘트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매달 말겨진 세멘트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적극 기여한 소성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며 소성로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세멘트직장에서도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매일 맡은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는 남다른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공업시험소의 기술자들도 과학기술성과로 정체강국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애국의 마음안고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며 공장의 설비현대화를 다그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려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생산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철도를 적극 지원

전국각지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전국각지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철도지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지난 5월에 1만 수천개의 궤간유지대소재와 3만 9천여개의 프크리트침목나사소재를 비롯한 많은 자재와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철도운수부문에 보내온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지원열의는 6월에 더욱 높아져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철도지원사업은 곧 자기 부문과 단위, 자기자신을 위한 사업이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애국사업입니다.》

평양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철도지원에서 계속 앞장서나가고있다.

시의 일군들은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운수부문지원사업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어려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리고있다.

철도운수부문의 수송성과를 확대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불같은 애국의 마음안고 지난 5월에 10여만의 강재와 많은 국에 보내준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6월에 들어와서도 철길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물질적지원과 함께 로력지원사업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다.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에서도 철도지원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활발히 벌리고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철도지원사업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애국사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히 일군들부터가 이 사업의 앞장에 서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평안북도안의 시, 군책임일군들은 말은 철길연선을 밟아보고 철도지원사업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운데 기초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신의주철도분국과 정주철도분국에 철길강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자재를 마련하여 보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동림광산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철도지원사업을 자기 단위, 자기자신을 위한 사업으로 여기고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원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 수송전사들의 증송투쟁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랍에 들어와 철도지원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보름동안에 8종에 1만 5천여개의 고착품소재를 마련하여 함흥철도국에 보내주고 방대한 량의 자갈보충과 자갈깨기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황해북도의 사리원시, 승호군, 장원도의 세포군, 남포시의 와우도구역, 항구구역에서도 철도지원을 위한 사회적분위기를 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켜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군과 구역들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철도운수부문과의 련계밑에 철길의 강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자재들을 알아보고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철길보수전투에서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지금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고무된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두줄기 궤도우에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물동수송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정 경 철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당정책관철전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성과

벼짚발효법에 의한 느타리버섯생산의 공업화 실현

평양버섯공장에서 벼짚발효법에 의한 느타리버섯생산의 공업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한 소식이 전해져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벼짚발효법에 의한 느타리버섯생산의 공업화실현은 당정책관철전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이며 평양버섯공장과 해당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안아온 귀중한 결실이다.

벼짚발효법에 의한 느타리버섯생산의 공업화가 실현된 결과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버섯을 더 많이 먹이시려고 마음써오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넘원을 현실로 꽃피우고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버섯의 나라로 만들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단위들에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현대과학기술의 위력에 의거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고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버섯생산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냉이속을 적극 리용하는것과 함께 대용기질들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지난해 4월 평양버섯공장을 찾으시여서는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발효법으로 버섯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며 생산원가와 에네르기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벼짚발효법에 의한 느타리버섯생산방법은 알곡부산물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강냉이속기질을 멸균하여 생산하는 방법에 비해 에네르기를 훨씬 적게 쓰는 원가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의 재배방법이다.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분발해나선 내각과 농업성의 해당 부문 일군들은 련관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를 조직하고 그들의 활동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와 첨단과학연구원 생물산업연구소, 농업성 중앙버섯연구소와 농기계연구소,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와 과학실험설비공장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버섯재배에서도 세계를 압도할 대담한 목표밑에 탐구전, 창조전에 파감히 떨쳐나섰다.

벼짚은 껍질부가 많아 굳이 침투되기 힘들고 물저장능력이 약한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도 벼짚발효법에 의한 느타리버섯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힘든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기질처리기술이 서로 다른 멸균제통과 발효제통의 생산공정을 하나의 건물에 결합시켜 공업화를 실현하는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였다.

하지만 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종전에 진행하던 벼짚발효법에 의한 느타리버섯생산의 실패원인과 새로운 착상의 실마리를 찾아쥐고 하나하나 완강하게 실천해나갔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선 생산환경의 오염원인과 경로, 오염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오염상태평가도를 만들어 그것을 국복할수 있는 기초자료를 작성하였다. 이어 재배장의 통기상태를 콤퓨터로 모의하여 온도, 습도, 탄산가스농도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보장할수 있는 체제도 구축하였다. 또한 벼짚의 물리화학적성질을 제정가하고 느타리버섯의 생물학적요구와 원료의 특성에 맞는 기질발효의 공업화기술을 새롭게 확립하였다.

이들은 공장의 일군들, 기술자, 로동자들과 지혜와 힘과 열정을 합쳐 혼합장과 기본생산건물사이에 있던 폐기질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파종장에 무균구역도 새로 설치하는 등 생산구역의 모든 요소마다에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놓았다. 그리고 파종기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없앰으로써 공정을 단순하게 하면서도 또 하나의 오염근원을 제거하였으며 구조적특성에 맞는 부분별소독방법도 창조적으로 도입실천하였다. 뿐만아니라 종균의 활성을 원게 측정할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고 건물환경보존에 사소한 지장도 주지 않으면서 종전보다 소독약을 1/10로 절약할수 있는 이동식공기소독기를 창안제작함으로써 공업화실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갖추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평양버섯공장에서는 원가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의 버섯재배방법인 벼짚발효법에 의한 느타리버섯생산의 공업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게 되였다.

강냉이속멸균법에 의한 생산방법과 함께 벼짚발효법에 의한 느타리버섯생산방법의 공업화가 훌륭히 실현된 평양버섯공장에서는 지금 흰곤봉버섯, 느타리버섯, 벼짚버섯을 비롯한 맛좋고 영양가높은 여러가지 버섯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당정책관철의 길에서 이룩된 이 자랑찬 성과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본사기자 장 은 영

교육도서인쇄공장개건공사 마감단계

온 나라의 학생들에게 보내줄 교과서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교육도서인쇄공장 개건공사가 지금 마감단계에서 적극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교육도서인쇄공장을 훌륭히 개건하는것은 공장에 깃들어있는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절박한 사업이다.

이것은 우리 당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작성된 새 교육강령집행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것으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교과서생산에서 절박한 문제로 나서는 종이보장대책을 위해주신데 이어 후대들에게 훌륭한 교과서들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교육도서인쇄공장개건공사를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연건축면적이 수만㎡에 달하는 공장개건공사는 교과서생산전투를 중단없이 벌리는것과 동시에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현대적인 새 건물들을 일떠세워야 하는 방대하고 어려운 공사였다.

이를 위해 내각과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로 강력한 현장지휘부가 조직되였으며 두해전부터 공사가 시작되였다.

현장지휘부일군들은 건설자들이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적극 짜고들면서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당의 숭고한 구상과 의도를 심장깊이 새겨안은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교육위원회 산하단위 종업원들은 군인건설자들과 군민협동작전을 벌려 지난해 9월까지 생산건물과 사무청사를 비롯한 방대한 골조공사를 기본적으로 완성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안의 많은 공장, 기업소종업원들과 카두녀성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사무청사내부공사를 힘있게 추진하는것과 함께 방대한 토량을 처리하고 도로를 빈틈없이 포장할수 있게 기초공사를 완성해나갔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꾸준한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면서 수많은 설계를 훌륭히 완성함으로써 공사에 크게 기여하였다.

기계공업성과 림업성, 채취공업성,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공사에 참가한 전투원이 된 심정에서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 수많은 세멘트와 통나무, 변압기를 비롯한 각종 자재와 설비들을 보장해나갔다.

특히 내각과 교육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당의 후대사랑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불타는 열의를 안고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척되도록 현지에 나와 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고있다.

수도건설위원회 책임일군들도 건설현장에 자주 나와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고 필요한 태백들을 제때에 세워주고있다. 류경건설관리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에 커다란 기쁨을 드릴 한마음으로 생산건물에 대한 마감공사를 책임적으로,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이 진행해나가고있다.

한편 여러 단위들에서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잘해주고있다.

교육도서인쇄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생산전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주인된 자각을 안고 개건공사에 참가하여 련일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다.

이런 양양한 전투분위기속에서 생산전물, 사무청사, 공무직장, 탁아소, 차고, 온실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적극 진척되여 날에날마다 새 모습을 펼치고있다.

한편 공장개건사업에 참가한 많은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의 연구집단들은 교과서생산공정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설비들을 높은 수준에서 연구제작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머지않아 이 공장에서는 자재, 반제품, 완제품은반제품이 완전히 무인화되고 교육으로 인쇄되는 인쇄물에 대한 검사공정이 자동화되여 질좋은 교과서들이 즐지어 쏟아져나오게 된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우리 당의 후대사랑, 교육중시사상이 융숭된 또 하나의 자랑찬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전투는 오늘도 진격적으로, 립체적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본사기자 김 명 훈

누에치기 본격적으로 진행

자 강 도 에 서

자강도에서 누에치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도안의 잠업부문의 농장, 작업반, 분조들에서 뽕깊은 올해에 더 많은 누에고치를 생산할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도안의 뽕밭들에 전개된 잠실들에서는 1계단으로 된 누에들의 고치따기와 함께 2계단 누에치기가 진행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강도에서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자면 잠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자강도에서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자면 잠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잠업부문 일군들은 뽕깊은 올해 누에치기를 계단식으로 하여 누에고치생산에서 또다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할 높은 목표를 세웠다.

도의 잠업부문 일군들은 누에고치생산을 늘이는것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중요한 문제로 틀어쥐고 지난 시기의 판넘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한해에 누에치기를 여러번 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하였다.

일군들은 누에치기회수가 지난 시기보다 두배 늘어난데 맞게 잠업부문의 농장, 작업반, 분조들에서 누에치기준비를 빈틈없이 해나가도록 기술지도와 조건보장을 따라세웠다.

일군들은 화학비료와 배낭식분무기, 아외잠실건설에 필요한 비닐박막을 넉넉히 보장해주는 한편 도에서 자체로 연구개발한 효능높은 소독약들을 제때에 보장하였다.

이와 함께 누에치기공정별에 따르는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여 뽕밭비배관리와 누에알깨우기, 어린누에와 큰누에치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잘 알고 실천에 옮기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도의 잠업부문 농업근로자들은 뽕밭비배관리와 누에치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하여 정보당 뽕잎생산과 누에치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누에고치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 1계단 누에치기에서 좋은 결실을 안아온 이들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2계단 누에치기를 본격적으로 내밀면서 가을누에치기준비를 잘해나가고있다.

우시군, 시중군, 성간군들의 잠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2계단과 3계단 누에치는 시기 무더기비와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있다.

희천시, 위원군, 장강군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시, 군들의 잠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뽕밭비배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잠실들에 무더기비와 셀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나가고있다.

도의 잠업부문 일군들은 올해 첫 누에치기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가 다음단계 누에치기들에서도 계속 이어지도록 기술지도와 조건보장에 큰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김 순 흥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력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다.
-순천화력발전소에서-
본사기자 리 룡 규 찍음

위대한 령도, 불멸의 70성상

주체의 기치높이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이름 불러만 보아도 존엄한 폭풍을 헤쳐가는 이 땅에 맥맥히 흐르는 위대한 정신이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에 뜨겁게 파고든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공화국의 70년사를 감회깊이 더듬어볼수록 우리 조국의 력사는 주체의 기치높이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해온 자랑찬 승리의 행로임을 다시금 긍지높이 절감하는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중시하며 우리 식을 주장합니다.》

진정한 애국은 과연 무엇인가.

애국중의 애국은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된 자각이며 자기의 모든것을 귀중히 여기고 자기 식으로 민족만대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으로, 이것은 우리 조국의 성스러운 행로에 관통되여있는 불변의 신념이다.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상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 식보다 더 좋은 식은 없다고, 우리는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식대로만 살아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우리 식!

새기면 새길수록 커다란 감회가 우리의 가슴을 적셔준다.

70년전 그날로부터 년대와 세기를 이어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우리 조국은 주체의 기치를 펄펄 휘날리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으로 풀고 번영의 활로를 열었으며 력사의 그 길에서 미증유의 기적을 창조해왔다.

우리 식은 이 땅에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주체의 강국을 탄생시켰고 이 강산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세기를 이어 울려퍼지게 하였으며 주체조선의 최전성기를 장엄히 펼치였다.

그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뼈에 새긴것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절세위인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식으로 살아나가는 바로 여기에 민족의 존엄이 있고 강성번영이 있으며 무궁한 행복이 있다는 고귀한 진리였다.

인류자주위업의 위대한 개척자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쌓으신 업적중의 업적은 세계에 어떤 바람이 불건 우리 인민이 모든것을 자기 식대로 해나가도록 영원한 사상정신적무기를 안겨주신 불멸할 공적이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를 생명선으로 내세우시고 모든것을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시였다.

그 길은 전인미답의 길이였다.

전후에 어느 한 나라의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농업협동화문제를 놓고 이렇게 말한적이 있다.

농기계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에서도 농업협동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업화도 하지 못하고 농기계 하나 제대로 생산하는것이 없는 조선에서 어떻게 농업협동화를 하겠는가고.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는 그 나라들과는 실정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농업협동화를 하여야 살아갈수 있다고 확신성있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로고속에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협동화는 시작된지 4－5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착취와 빈궁이 종국적으로 청산되고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가 확립되여 농업생산력발전의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협동화에 이어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투쟁도 우리 식으로 그 어떤 사소한 편향도 없이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이 통합경제체계에 들라고 압력을 가할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어느해인가 함경남도의 한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곳 로동계급이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만든 수자조종장치를 보아주시였다.

한 일군으로부터 이 기대를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로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시며 허리에 두손을 얹으시고 기대의 작업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시였다.

이윽토록 기대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수자조종장치가 달린 선반이 아주 좋다고, 동무들이 정말 큰일을 하였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이때 동행한 한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께 기계공업이 발전되였다고 하는 일부 나라들에서 수자조종장치의 중요부분들을 자기 나라의 독점물로 만들려는데로부터 그 기술적특성을 비밀에 붙이고있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우리는 이렇게 남이 하지 못하는것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다음공정으로 향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업장과 련결된 출입문 좌우에 걸려있는 구호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를 보시며 구호가 힘이 솟는다고, 참 좋은 구호라고 말씀하시였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정녕 이 구호에는 준엄한 력사의 폭풍우속에서 남들이 걸어보지 못한 력사의 초행길을 헤치며 당의 령도따라 우리 식으로 만난시련을 승리적으로 헤쳐온 우리 조국의 빛나는 로정이 응축되여있었다.

이 불멸의 구호를 되새기는 우리의 마음은 제2차 7개년계획수행의 불길이 타오르던 1970년대에로 달린다.

당시 정치적혼란과 심각한 경제적위기에 빠진 제국주의자들은 그로부터 헤어나보려고 세계의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적요충지들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들이밀고 군사기지를 확대하는 한편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는 길로 나갔다. 한편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은 자기의 그릇된 로선을 다른 나라들에까지 내려먹이려고 하고있었다. 이로 하여 국제무대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자주적인 발전의 길에서 리탈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적지 않은 나라들이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강권과 간계에 의하여 좌왕우왕하고있었다.

복잡한 국제정세의 여파는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에도 커다란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력사적경험을 총화하시면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길만이 조선혁명을 더욱 앙양시키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전략적로선으로 될수 있다는 중대한 결론을 내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로부터 주체67(1978)년 12월 25일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이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그 어떤 바람이 불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식을 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해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였다.

그 이후의 정세발전은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그로부터 1년후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여기에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고 하시였다.

우리 식은 곧 주체식이며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이였다.

우리 인민은 신념의 구호《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를 뼈에 새기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갔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것을 기화로 하여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의 기치높이 승리떨쳐온 우리 혁명의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나갈 신념을 더욱 굳히시며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우리 식을 확고히 견지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21세기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타오르던 나날에 있었던 이야기는 또 얼마나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것인가.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여러곳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업소에서 최근시기에 이룩한 성과는《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사업과 생활에 전면적으로 구현한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기업소의 경험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을 안고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가 없고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에게는 부족한것이 많고 없는것도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남에게 의존하여 풀어나갈수는 없다고, 오늘의 대고조에서 전체 인민이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우리 혁명의 요구와 나라의 실정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

평양양말공장을 찾으신 그날에도 다른 나라 사람들의 오만한 기술적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콤퓨터로 설비들을 조종할수 있는 우리 식의 종합조종실을 꾸려놓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더없이 만족해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진정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토록 간직하신 주체의 신념이고 그이의 거창한 혁명실천에 관통되여있는 불타는 애국의지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명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으로 끓어오른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식으로 조국땅우에 비약의 폭풍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아래 이 땅에는 그 얼마나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졌던가.

인민극장, 릉라인민유원지, 창전거리, 류경원,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은하과학자거리, 마식령스키장, 연풍과학자휴양소,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과학기술전당, 보건산소공장…

격동의 시대에 세인을 놀래우며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 이 모든 창조물들마다에는 우리 식으로 이 땅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려는 우리 원수님의 철의 의지가 력력히 어려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강국념원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시려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비범한 령도의 손길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막아서는 전대미문의 시련과 고난을 단호히 쳐갈기며 거창한 기적적사변들을 다계단으로 안아왔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은 만방에 힘있게 과시되였다.

위대한 당의 부름따라 주체의 기치높이 조국번영의 활로를 열어제끼기 위한 경제건설대진군의 북소리가 강산을 진감하는 이 시각, 우리 천만군민은 심장으로 웨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을 천만금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고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무궁강대하리라!

본사기자 김일권

영웅소대가 태여나기까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웅이 될것을 요구하며 또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수십년전 6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일군을 반겨맞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겠다고 하시였다.

그 일군이 보고드린 자료가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였다는 소식이였다.

룡양광산 금산갱 7호굴착기소대원들의 투쟁자료였다.

7호굴착기소대원들은 10년동안 해마다 년간계획을 훨씬 앞당겨 끝낸것은 물론 자기들의 핵심적역할로 광구안의 모든 소대들을 천리마기수의 대오에 들어서게 한것을 비롯하여 실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사실을 놓고 일군은 크게 감동되였다. 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그 사실을 보고드리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시며 그들의 투쟁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으시였다.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그들이 1 200m의 백금산이 평지로 될 때까지 산정에서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고 10년세월을 하루같이 성실하게 일해온 사실, 뒤떨어진 소대들에 잘 꾸려진 채굴장을 여러차례나 통채로 넘겨주고 고급기능공들까지 보내주어 다같이 혁신의 길을 달리도록 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상세히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룡양광산 7호굴착기소대원들의 정신세계를 높이 평가하시며 한두사람이 아니라 집단이 영웅주의를 발휘한것이 훌륭하고 자기 소대만이 아니라 온 광산을 위하는 그들의 집단주의정신이 고귀하다고, 이것은 오직 주체사상이 사회생활에 전면적으로 구현된 우리 나라에서만이 발휘될수 있는 혁명정신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 사실은 그저 듣고 칭찬이나 해줄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자료를 어버이수령님께 올리시였던것이다. 그런데 수령님께서 그토록 만족해하시였다고 하시니 일군의 가슴 얼마나 벅찼으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을 미덥게 바라보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룡양광산 7호굴착기소대원들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만드는데서 하나의 본보기를 창조하였습니다. 우리 로동계급이 다 그들처럼 준비된다면 혁명은 더 빨리 승리할것입니다. 그들을 전국의 로동계급속에 본보기로 내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모두를 영웅같이라고 보는데 만일 그들이 다 영웅이 되여 우리 나라의 로동계급속에서 영웅소대가 태여난다면 얼마나 장하고 경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

그때로부터 얼마후 참으로 감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룡양광산 7호굴착기소대전원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한다는 정령이 발표되였던것이다.

영웅까지 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이였다. 한날한시에 소대전원이 영웅으로 된 이 놀라운 현실은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경사였다.

영웅소대의 탄생, 그것은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을 지니시고 값높은 삶을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태양의 품에서만 태여날수 있는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혁명일화였다.

본사기자 림정호

손수 그리신 설계도

위대한 전통의 빛나는 계승속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

백전백승만을 아로새겨온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력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볼수록, 더욱더 승승장구할 천만년미래를 확신할수록 이 땅에 혁명전통계승의 빛나는 장을 장엄하게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안아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근본담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여름 위대한 장군님께서 량강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고계시던 때의 일이다.

어느날 깊은 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방에서만이 불빛이 새여나오고있었다.

밤을 지새우시며 헌신하시는 그이의 건강을 걱정하여 항일의 한 녀투사가 자기의 진정을 말씀드리였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더 격정하시면서 이왕 오신김에 한가지 이야기해달라고 청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중학교학생들이 눈길을 하루에 몇리나 걸을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녀투사는 산에서 아동단원들은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하루에 60리는 실히 걸어다녔다고 말씀드렸다.

하루에 60리라…

이렇게 조용히 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펴놓은 종이우에 선을 그으시고 무엇인가 써넣으시는것이였다.

그이께서 매일 밤 펴놓고 보시는 그 종이에 녀투사는 호기심이 동하였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뜻밖에도 여러가지 색갈로 표시된 각종 부호들과 점, 선들로 들어찬 지도였다.

녀투사가 의아해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내가 지도를 가지고다니면서 혁명전적지들과 사적지들을 표시하여보았는데 백두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나라 그 어디에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만경대와 봉화리, 백두산과 삼지연, 청봉, 보천보, 포평을 비롯하여 그 어디에 가나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고 혁명선렬들의 뜨거운 숨결이 깃들어있습니다.

…

유서깊은 전적지들과 사적지들에 수령님의 동상을 더 정중하게 모시고 사적물들도 원상대로 보존하며 사적비와 기념탑, 조각군상들을 만들어세워야 합니다.

그이의 말씀을 새기며 녀투사가 지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방금전에 자기가 대답올렸던 그 60리도 새 세대들이 진행하게 될 답사행군로정도에 반영되여있었다.

혁명전통교양을 한시라도 중단하면 혁명은 곧 좌절을 겪게 되고 목적하고 떠나온 길에서 탈선하여 결국은 간고하게 개척해온 혁명의 전취물을 죄다 말아먹게 된다. 혁명전통교양이야말로 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계속해야 하며 혁명이 승리한 후에도 중단하지 말아야 할 영원한 사업이다.

그러고보면 그것은 단순히 지도가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취가 어려있는 지점들에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훌륭히 건설하여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한 원대한 설계도였다. 오늘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항일의 혁명전통을 만년초석으로 삼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반드시 이룩해야 할 조국의 머나먼 래일이 그려진 전망도였다.

녀투사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마련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그 누구도 내놓지 못했던 이러한 설계도는 오직 혁명의 수령이 창시한 혁명전통을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중시하시고 그것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을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혁명의 만년진로가 아닌가.

진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만년대계의 설계도가 있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될것이라는 확신으로 녀투사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구상에 따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들이 훌륭히 꾸려졌고 천만군민은 그이께서 손수 정해주신 로정을 따라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답사하고 참관하면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체득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여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광찬란한 미래가 굳건히 담보되여있다.

이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우리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본사기자 한영민

혁명렬사 강건동지의 반신상에

화환 진정

【평양 6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혁명렬사 강건동지 생일 100돐에 즈음하여 23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있는 그의 반신상에 화환이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반신상앞에 놓여있었다.

화환진정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동지와 내각부총리 전광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소장 량원호동지, 당중앙위원회 성원들, 성, 시급기관 일군들, 유가족들이 참가하였다.

인민무력상 륙군대장 노광철동지를 비롯한 인민무력성 일군들과 군인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강건동지의 반신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이어 인민무력성, 성,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과 꽃다발들이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생애의 전기간 혁명의 총대를 잡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강건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길에 쌓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일군과 문화정서적소양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이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영웅적투쟁을 고무추동할것을 바라고있다. 일군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오늘의 대진군에서 송풍기적역할을 다하자면 강한 혁명성과 함께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니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문화정서수준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메마른 땅에서 아름다운 꽃이나 알찬 열매를 바랄수 없듯이 정서가 없는 생활에는 윤기가 없고 그런 생활에서는 삶의 희열도 열정도 나올수 없다. 혁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풍만한 정서가 있고 정서가 넘치는 곳에는 반드시 들끓는 투쟁과 생활이 있다.

문화정서적소양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일군들이 아는것이 많고 정서가 풍부하여야 현실을 폭넓고 깊이있게 파악할수 있으며 사업을 활력있게, 창발적으로 할수 있다. 혁명가의 고상한 품격을 갖추고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적극 불러일으키자고 해도 그렇고 온 사회에 락천적인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자고 해도 일군들이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녀야 한다.

일군들이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니는것은 혁명가의 품격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혁명가는 혁명만 알고 생활을 모르는 인간이 아니다. 그 누구보다도 문화정서적소양이 높고 다정다감하며 심장이 뜨겁고 생활을 사랑할줄 아는 인간이 바로 혁명가이다. 높은 사상의식, 고상한 도덕의리와 함께 풍만한 감정정서는 혁명가가 지녀야 할 중요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혁명가의 품격은 일군이라고 하여 저절로 갖추어지는것이 아니다. 아무리 각오가 높고 열성이 있다고 하여도 생활을 문화정서적으로, 락천적으로, 다정다감하게 하지 못하는 일군에게서는 인정미도, 혁명동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발양될수 없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굳은 신념도 일군들이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닐 때 더욱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수령송가를 창작한 혁명시인 김혁동지는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닌 혁명가였다. 그는 세계에 대한 견문도 넓고 리론수준도 높았으며 특히 문학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얌전하였지만 일단 총칼만 가해지면 쇠가마처럼 끓으면서 단김을 뿜는 열정의 인간이였다. 조국강산에 암흑의 비운이 짙게 드리웠던 그 시기 명망있는 지식인들도 울밑의 봉선화를 부여안고 몸부림칠 때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창작보급한것만 보아도 그의 혁명가적품격과 자질이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우리 시대 일군들은 김혁동지와 같이 누구보다도 문화정서적소양이 높고 다정다감하며 심장이 뜨겁고 생활을 사랑할줄 아는 참된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

일군들이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니는것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술은 그들을 사상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데 있다. 일군들이 사람의 마음을 틀어쥐지 못하고 대중의 감정정서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서는 그 어떤 사업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일군들은 위엄과 직권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관료가 아니라 풍부한 감정정서와 뜨거운 인정미로 대중을 움직이는 군중공작의 능수가 되여야 한다.

일군들이 풍부한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니는 과정은 세련되고 로숙한 사업방법을 체득하는 과정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일군들은 책을 읽고 영화나 노래를 감상하며 대중과 한데 어울려 예술소조활동이나 체육활동을 벌리는 과정에 인간생활에 대한 보다 깊은 리해를 가지고 사람들의 심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며 그에 따르는 자신의 사업방법과 작풍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이 군중과 어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자면 주패, 장기도 할줄 알고 노래도 부를줄 알아야 하며 시도 읊고 체육도 할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서가 메마르고 딱딱하면 군중이 속을 잘 주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게 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오늘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는 대고조전투장마다에는 자신들이 직접 마이크와 북채를 들고 대중을 기적창조에로 추동하는 일군들이 수없이 많다. 이들은 례외없이 노래를 사랑하고 책읽기를 즐기며 예술경연무대나 체육경기장에도 남먼저 나서는 열정의 인간들이다. 이런 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혁명열, 투쟁열이 충천하고 새로운 시대속도, 시대정신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된다. 모든 일군들이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며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때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앞당겨 점령할수 있다.

일군들이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니는것은 온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온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우는 사업은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 조국을 문명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다.

사회전반의 문화정서수준은 일군들의 문화정서적소양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것은 일군들이 대중의 교양자이며 선도자이기때문이다.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정서생활에서도 일군들이 앞장서야 아래사람들이 자연히 그 모범을 따르게 되며 온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우는데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중요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자면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혁명적분위기로 부글부글 끓어야 한다. 그러자면 일군들부터가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니고 생활을 정서적으로, 락천적으로, 문명하게 조직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님으로써 오늘의 총진군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명주혁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공격전의 불길 세차게 타오른다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제끼며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장에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10여개소의 물길굴, 잠관, 무넘이언제공사를 끝내고 수십개소의 배수암거, 분수문을 비롯한 구조물공사를 완공한 기세로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될 때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일군들은 목표를 높이 세우고 통이 크게 일판을 전개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앞장에서 결사옹위하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것도 일군들이며 오늘의 총진군을 조직지휘하는것도 일군들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정초부터 기적창조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지휘부의 일군들은 물길공사를 다그치는데서 자신들의 어깨에 실린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며 분발해나섰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우기홍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올해 높이 세운 공사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대담하고 립체적인 작전을 펼치고있다. 특히 저수지언제와 물길굴공사를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모든 려단들에서 여기에 로력과 자재를 집중하여 성과를 올리게 하고있다.

방대한 공사량이지만 황남땅을 생명수가 철철 흘러넘치는 풍요한 옥토로 전변시키는데서 2단계공사가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가를 일군들은 누구보다도 깊이 자각하고 앞채를 메고 달리고있다.

일군들은 결사관철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당이 준 과업을 반드시 수행하기 위하여 만짐을 지고 생눈길, 진창길을 앞장에서 헤쳐나가는 대오의 기관차가 되어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모든 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철석의 각오를 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지휘부와 모든 려단들에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첨입식정치사업, 증산절약투쟁,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한 지휘부일군들은 전투장마다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돌격대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공화국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총진군에서 물길건설자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려는 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으로 온 공사장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일군들은 성과가 오를수록 자력자강의 위력은 과학기술의 위력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더 많은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도록 대중을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결과 많은 자재와 로력을 절약할수 있는 가치있는 수십건의 기술혁신안이 창안도입되어 공사장마다에서는 속도와 질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다.

또한 지휘부의 분과장이상 일군들이 한개 려단씩 맡고 내려가 전투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하고있다. 특히 시공분과의 일군들은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저수지언제건설장을 비롯한 여러 대상들의 시공지도를 앞세움으로써 이 단위들이 혁신의 앞장에 서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려단을 맡고 내려간 일군들은 부족되는 공사자재들을 제때에 신속정확하게 해결해주어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높여주고있다.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중요자재보장을 맡은 일군들도 자기들이 뛰는것만큼 공사속도가 높아진다는 자각을 안고 하루에도 수백리길을 오가며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지휘부에서는 자체의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수리정비를 잘하여 자동차들의 가동률을 높이고있는 평양시려단, 물길기계화사업소대대의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륜전기재들의 실동률을 높일수 있게 하고있다. 한편 륜전기재출동식과 기공구전시회를 조직하여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도록 하고있다.

올해전투목표점령을 위한 열쇠가 자기들의 손에 쥐여져있다는 책임감을 깊이 자각한 일군들은 대담한 작전과 완강한 실천으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대오의 앞장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다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속에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장에서는 날이 갈수록 더 높은 실적이 기록되고있다.

본사기자 전명일

기적을 안아온 위훈의 22시간

함경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함경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맡은 대상건설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22시간, 사람의 한생에서 순간에 지나지 않는 시간이다. 하지만 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이 22시간동안의 투쟁으로 당이 준 과업을 무조건 결사관철하기 위해 산악같이 떨쳐나선 물길건설자들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려단이 맡은 대상공사는 하천바닥을 깊이 파고 잠관을 묻어야 하는 어려운 건설과제였다. 하지만 려단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조건을 탓하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용약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공사장마다에서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로 사상공세를 들이대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돌격대원들을 불러일으켜 모든 대대가 련일 실적을 올리게 하였다.

청암구역, 온성군대대가 맡은 잠관공사장에 긴급한 정황이 조성되었을 때였다. 련일 내리는 비로 하여 하천의 물이 불어나 건설장이 침수될 위험에 처하였다.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였다.

한창 기세좋게 작업을 진행하던 돌격대원들은 당황해났다.

오늘 못다한 계획을 래일로 미루겠는가. 이 물음앞에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이렇게 한목소리로 대답해나섰다.

조건이 어렵다고 맡겨진 전투과제를 미룬다면 당앞에 다진 맹세는 어떻게 지키겠는가. 죽으나사나 오늘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자.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이런 의지를 안고 떨쳐나섰다.

조성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료해한 려단장 전철호, 정치부장 조동철, 참모장 최만수동무들은 전투력량을 기동성있게 조직전개하는것과 함께 비닐박막을 리용하여 물막이대책을 세워 콩크리트치기가 순간도 중단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짧은 시간에 배수로를 째고 양수기들을 더 배치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세웠다.

계속 내리는 비로 작업장은 진창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김책시, 송평구역, 경흥군, 경원군대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순간도 전투를 멈추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휘틀조립전투가 립체적으로 벌어졌고 다른쪽에서는 혼합물이 담긴 맞들이를 쥐고 미끄러운 진창길을 달리는 돌격대원들로 하여 공사장은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물길공사를 하루빨리 완공하려는 돌격대원들의 신념과 의지는 난관이 겹칠수록 더욱 굳세여졌다.

결사의 의지로 끓는 심장들은 마침내 기적을 안아왔다. 계획된 콩크리트치기전투를 단 22시간동안에 끝내는 혁신을 일으켰던것이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참된 삶의 자서전을 새겨갈 불같은 마음을 안고 순간순간을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는 미더운 물길건설자들, 이런 신념의 강자들이 물길을 열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5개소의 물길굴, 잠관공사 완공

황해북도려단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황해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5만 2 000여㎥의 토량을 처리하고 1만여㎥의 암반굴착, 7 300여㎥의 버럭처리, 수천㎥의 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하여 5개소의 물길굴과 잠관공사를 완공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 자랑찬 성과는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과감한 련속공격전으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창조하여 어머니당에 승리의 보고를 올릴 일념안고 철야전투를 벌린 려단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무조건 결사관철할 일념안고 떨쳐나선 려단장 신성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공사속도를 2배로 높여 계획된 공사과제를 당앞에 결의한 날자보다 앞당겨 끝낼 높은 전투목표를 세웠다.

그들은 금학지구에 지휘부를 정하고 통이 큰 작전과 지휘로 려단의 총력을 집중하였다.

일군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여 높은 공사속도와 질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갔다.

려단에서는 모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중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들이대었다.

전투장 어디서나 돌격대원들의 심금을 울리는 첨입식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를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완공하자. 이런 열의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의 세찬 숨결이 맥박치는 전투장은 거대한 분화구로 화하였다.

련일 내리는 비로 갱안에 계속 물이 차오르는것으로 하여 공사는 물과의 치렬한 격전이였다. 물길굴공사를 맡은 사리원시, 은파군, 서흥군대대의 돌격대원들은 작업구간에 둑을 쌓고 물을 퍼내면서 한치한치 콩크리트치기를 해나갔다. 물을 퍼내고 바닥을 가셔내는 등 모든 작업이 립체적으로 벌어졌다.

대대장, 정치지도원들을 비롯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물길굴을 완공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고 하면서 완강하게 공사를 내민 군인건설자들처럼 결사전을 벌렸다. 잠관공사를 맡은 송호군대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계속 밀려드는 밀물로 공사조건이 매우 불리하였지만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련일 위훈을 창조하였다. 결과 사리원시, 송호군, 정산군, 황주군, 은파군대대가 려단적으로 맡은 공사과제를 제일먼저 끝내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사회주의경쟁열풍이 휘몰아치는 속에 다른 대대들에서도 맹렬한 련속공격전이 벌어졌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분분초초를 애국충정과 성실한 땀, 지칠줄 모르는 헌신분투와 로력적위훈으로 수놓아가는 이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2단계공사완공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박철

승리의 결승선을 향하여 앞으로

건설건재공업성려단 돌격대원들

어제날의 새 기록이 오늘날에는 낡은것으로 되고있는 물길공사장에서 위훈의 하루하루는 어떻게 수놓아지고있는가.

건설건재공업성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맡겨진 공사과제를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결사관철하기 위해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 뚫고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수백m의 물길굴공사과제를 맡은 려단에는 형언할수 없는 난관들이 앞을 막아나섰다. 공사 전구간에 석비레층이 나타나 굴이 붕락될수 있는 조건으로 하여 전투장에는 기계수단을 투입할수 없는 형편이였다.

물길굴이 점점 깊어지면서 작업조건이 종전보다도 더 나빠졌다. 사실 암질이 무른것으로 하여 한m의 굴진을 하고 콩크리트피복공사를 하기를 끝없이 반복해온 이들이였다.

생명까지 내대야 하는 간고한 전투였지만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순간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었다.

그런데 작업조건이 더 어려워졌던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기다리겠는가, 계속 내밀겠는가. 이 물음앞에 해주산업건설사업소대대와 금속건설사업소대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이렇게 대답해나섰다.

한몸이 그대로 욕판이 되여서라도 당앞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관철하자.

대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이런 배심을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려단의 일군들은 대중의 드높은 열의에 맞게 작업조직을 짜고드는 한편 집체적지혜를 모아 암질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자기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떨쳐나선 기술일군들은 며칠밤을 새우기도 하고 밤길도 걸으면서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기존공법을 깨버리고 새로운 공법을 받아들이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돌격대원들은 물길굴뚫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켰다.

오직 함마와 정대로 전진해나가야 하는 공사장은 돌격대원들의 기개와 용감성을 시험하려는듯 하였다.

《여기는 명령관철의 최전방이다!》, 《나를 따라 앞으로!》

공사장에 나붙은 전투속보들은 그대로 돌격대원들의 심장의 목소리를 담고있었다. 한m한m 전진하는 그들의 가슴가슴은 하루빨리 물길공사를 완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끝까지 받들 굳센 의지로 불타올랐다.

김현일, 박호영동무를 비롯한 려단일군들은 돌격대원들과 함께 착암도 하고 버럭도 나르면서 그들의 열의를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일군들의 이신작칙은 돌격대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공사장에서는 물길굴확장공사와 콩크리트피복공사가 동시에 벌어졌으며 돌격대원들은 그날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작업장을 떠나지 않았다.

결사전으로 이어진 날과 날들이였다.

이 시각도 건설건재공업성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한몸이 그대로 정대가 되고 함마가 되여 기어이 물길굴공사를 완공할 결사의 각오로 한치한치 전진해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다수확의 비결은 과학농사에 있다

북청군 보천과수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북청군 보천과수농장은 과일농사뿐아니라 알곡생산도 잘하여 동해지구에서 소문을 내고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던 포전들에서 다수확을 내고있는 사실은 농업부문 일군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조직자가 되고 집행자가 되자

어느 농촌에 가나 새로운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결같지 않다.

그 중요한 원인이 바로 농사를 책임진 해당 단위 일군들이 당의 과학농사방침을 결사관철하려는 관점에서부터의 차이라는것을 이 농장의 경험이 잘 말해주고있다.

몇해전 2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를 격정속에 받아안은 한명회지배인은 생각이 깊었다.

당시 농장일군들은 물론 종업원들까지도 해마다 과일생산계획을 수행하고 알곡생산에서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한것으로 하여 만족해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서한을 받아안은 일군들은 정신을 번쩍 차리였다. 성과에 만족하면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고 종당에는 주저앉게 될것이 아닌가.

찾은 교훈은 컸다. 지배인은 당조직과 토의한 다음 과일농사는 물론 알곡농사에서 본보기를 창조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최근년간에 급속히 파급되고있는 앞선 영농방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이 목표를 달성하자는것이였다.

여러차례의 진지하게 진행된 협의회과정에 과수밭면적을 늘일데 대한 문제, 과일나무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밑비료주기와 함께 과학적인 가지자르기방법을 받아들일데 대한 문제 등은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논벼농사에서 우량품종들을 받아들여 정보당 소출을 높이는 문제는 론의가 많았다.

과일생산량만 늘여도 대단한데 알곡생산량까지 어떻게 높이겠는가. 과일나무를 관리하는데만도 많은 로력이 드는데 수백정보나 되는 논밭을 무슨 힘으로 관리하겠는가. 또 적산온도가 낮은 동해지구에서 우량품종도입은 시기상조이며 그것을 전면적에 받아들였다가 실패하는 경우 책임에 대해 심중히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의견을 놓고 한명회지배인과 리창석기사장은 한자리에 모여앉아 심중한 토론을 거듭했다. 얼핏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것 같지만 따져놓고보면 그 의견들의 밑바탕에는 과학농사에 대한 신심이 부족한데로부터 생겨나는 패배주의가 있다. 오늘 당에서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어디서나 다수확을 낼것을 바라지 않는가.

문제를 이렇게 세운 일군들은 생육기일이 긴 우량품종을 도입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나갔다. 그 과정에 큰모재배방법을 받아들이고 활성제를 리용하면 동해지구에서도 우량품종의 생육기일을 얼마든지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일군들은 이 방법을 벼종자처리에 도입하도록 하고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이것은 일군들이 동해지역에서도 우량품종의 생육기일을 얼마든지 늘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어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아주고 선진영농방법도입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자는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조직한 사업이였다.

종자싹트기률이 종전보다 훨씬 높아진것을 실물로 보며 인식한 작업반장들은 영농공정별에 따라 활성제를 적극 리용하였다. 즉 모판에서 1회, 포전에서는 3회정도 미량원소비료와 함께 분무하였다. 이렇게 큰모재배방법을 받아들이고 활성제를 적극 리용하니 우량품종의 생육기일을 보장할수 있었다.

여기서 신심을 얻은 일군들은 현실에서 널리 도입되고있는 마른논써레치기와 이랑재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내밀었다.

대부분이 저습논인 조건에서 지난 시기 농장에서는 물논써레치기를 한 다음 모내기를 하군하였다. 그러다보니 땅이 굳어져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하여 벼생육에 지장을 주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이랑짓는기계를 만들어야 하였는데 당시 농장의 형편으로 볼 때 철판을 비롯한 자재가 없었다.

그때 지배인은 이 사업을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자신의 몫으로 간주하고 아낌없이 투자하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이 기계를 만들어 저습논들에 대한 마른논써레치기와 이랑짓기를 하였다. 결국 이 포전들에서 정보당 1t이상의 알곡을 증수하였을뿐만아니라 많은 기름도 절약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과학농사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인식하게 된 일군들은 과학농법도입은 기술일군들의 몫이기 전에 자신들이 맡아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방법론을 찾아 이 사업을 강하게 내밀었다.

지명총화를 새롭게 진행한 사실을 보자.

지난 기간 지명총화는 주로 실적을 위주로 진행하군 하였다. 그러다보니 기술공정의 하나인 영농작업이 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과일나무열매솎아주는 시기에 진행한 지명총화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일부 작업반들에서 열매솎음을 일정기 끝냈지만 일수에 따라 진행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때에도 일군들은 실적총화보다 질보장을 중시하고 편향을 바로잡아주며 요구성을 높여 이런 현상들이 극복되게 하였다.

지배인이 과학농사에 얼마나 관심을 돌리고 품을 들이였는가 하는 실례가 있다.

지난 시기 농장에서는 곧뿌리에 겉뿌리가 많이 생기게 하기 위해 뿌리를 잘라 모판에 옮겨심군 하였다. 이렇게 하니 많은 로력과 품이 들었다. 누구나 이것을 어쩔수 없는 일로 여기였다.

그러던 어느날 벼모판만들기작업을 조직하던 지배인의 머리에는 한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벼모판에 차단재를 깔아놓는것처럼 종모판에 이 방법을 도입하면 곧뿌리가 깊이 뻗는것을 막고 겉뿌리가 많이 생기게 할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자기의 의견을 기술일군들에게 내비치였다. 그러자 그들은 벼모판차단재의 원리를 리용하면 겉뿌리가 많이 생기게 할수 있을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것이였다.

농장에서는 이 방법대로 모판을 만들고 종모를 옮겨심었다. 결국 종에 겉뿌리가 많이 내리면서 뿌리의 로화를 막을수 있었고 포기당 알수도 많아지게 되였다. 이것은 종수확고를 높이는데서 큰 전진이였다.

과학농법도입에서 자기의 책임감을 깊이 자각한 일군에게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것도 발견하는 안목이 생기고 기발한 착상도 떠오르는 법이다.

만일 이곳 일군들이 과학농사를 전적으로 책임진 립장에 서지 못했더라면 종농사문제는 풀리기 어려웠을것이다.

이처럼 과학농사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지난해 일부 작업반에서는 종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였으며 정보당 수십t의 과일을 생산한 포전들이 늘어났던것이다.

과학농법도입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이 찾은 교훈이 있다. 그것은 기술일군들에게만 방임해서는 새 기술이 나와도 제때에 받아들일수 없다는것이다. 조직사업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책임진 립장에서 과학농법도입에 관심을 돌리자, 이것이 이곳 일군들이 과학농법도입사업에서 중시한 문제의 하나였다.

모두가 과학농사의 주인이 되여

아무리 선진적인 영농방법도 그것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면 성과를 이룩할수 없다. 지난 시기의 교훈이 그것을 말해주었다.

몇해전 농장에서는 현실에서 은을 내고있는 큰모재배방법도입을 위해 보여주기사업도 조직하고 이틀에 걸쳐 강습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일군들은 생각되는것이 있었다. 농사의 주인들이 자신심을 가지고 완강하게 내밀어야 성과를 거둘수 있지 않겠는가.

그들은 주관적욕망만 앞세웠던 자신들의 일본새에 대해 통절히 느끼며 대중을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키우기 위한 방도를 찾아나갔다.

그 과정에 과일생산에서 기능공양성문제를 자체로 해결한 경험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몇해전부터 알곡농사를 위주로 하던 농장이 과수농장으로 전환되면서 기능공들이 부족하였다. 사실 지금껏 알곡을 위주로 하는 농사를 짓던 사람들에게 과수전문지식을 배워준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때 일군들은 기능공자격검정시험도 조직하고 직접 지도교원이 되여 과학적인 가지자르기방법을 하나하나 배워주면서 이 사업을 꾸준히 내밀었다. 결과 종업원들속에서 과일농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짜고들어 가지마다 과일이 주렁지게 되였다.

결사관철의 립장이 확고할 때 난관을 뚫고나갈 궁냥이 트이게 된다.

일군들은 종업원들을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키워주기 위해 머리를 쓰는 과정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관리위원회 앞포전에 정밀시험포전을 새로 내오도록 하였다. 7정보나 되는 이 시험포전에서는 새로운 우량품종이나 영농방법들에 대한 시험뿐만아니라 지력을 개선하고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대비시험도 진행되였다.

지력상태가 자기들의 포전과 별로 차이가 없는 시험포전에서 논벼 정보당 10t이상의 소출을 낸것을 보고 누구나 과학농사의 우월성을 인식하게 되였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농사의 직접적담당자들이 과학농사의 우월성을 직접 보고 인식하니 실효가 더욱 컸다.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선진영농방법을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인것도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는 좋은 경험이다.

물절약형농법의 하나인 이랑재배방법도입과정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일군들은 내리먹이는 식으로 사업조직을 하지 않았다.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들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양시키도록 하였다.

결과 혁신적인 안들이 제기되였다. 그가운데서도 이랑너비는 넓히고 렬사이와 포기사이거리를 좁혀야 한다는 제5작업반장의 제안은 모두의 관심을 끌었다.

이랑재배포전에는 고랑에 물대기를 하는데 그 물량은 고랑깊이에 비례한다. 해비침률과 통풍조건을 고려하여 이랑너비를 넓혀야 한다. 이것을 인식한 다른 초급일군들은 신심을 가지고 달라붙어 이 방법을 도입해나갔다.

실정에 맞는 살초제치기방법도 대중의 지혜를 적극 발동하는 과정에 나왔던것이다.

미생물비료를 적극 받아들여 지력을 더욱 개선하고 생육상태를 놓고 비료주는 시기와 량을 정한것을 비롯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는 비배관리방법을 받아들인 실례는 많다.

과학농사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농장에서는 지난해에 또다시 과일대풍을 안아왔다. 뿐만아니라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했던 해보다 논벼 정보당 수확고를 훨씬 높이고 수십정보의 포전들에서 정보당 10t이상을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성과를 놓고 초급당위원장 홍룡철동무는 말하였다.

《우리 일군들이 과학농법도입을 책임지는 립장에서 옳은 방법론을 탐구하고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 아무리 불리한 조건에서도 다수확을 낼수 있습니다.》

본사기자 정성일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받들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돌격전에 박차를

방법론을 찾아쥐고 이악하게 실천할 때

강원도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강원도과학기술위원회의 일군들이 도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최근 몇해동안에 실로 많은 일을 해제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군들은 과학기술을 중시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이악하게 투쟁하여 도안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있다.

이곳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사업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답을 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과학기술적으로 떠밀어나갈수 있는 연구력량과 개발단위들을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과학기술위원회앞에는 도안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중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고있다.

그러면 아름차면서도 방대한 과업을 높은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는 무엇인가.

오늘의 벅찬 현실은 누구나 다 빠른 기간안에 높은 실력가가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과학기술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성원들을 능력있는 실력가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한것이다.

특히 새 세대 일군들의 수준을 부쩍 높여 그들이 그 어떤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들도 막힘없이 수행하도록 사업을 전망성있게 조직하고 내밀고있는것이다.

지난 기간 위원회에서는 새 기술과제가 제기되면 능력있고 경험있는 오랜 일군들이 맡아 수행하군 하였다. 얼핏 보면 옳은 일인것 같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나간다면 젊은 일군들의 실력은 언제 높아지겠는가 하는것이다.

더우기 위원회에서 세대교체가 급격히 일어나고 날이 갈수록 새 기술과제가 계속 제기되고있는 현실은 몇몇의 유능한 일군들에게만 의존할수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위원회에서는 몇년전부터 젊은 일군들에게도 새 기술과제를 대담하게 맡겨주는 사업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였다.

여기서 잘한것은 새 기술과제 수행을 위한 력량편성이였다.

위원회에서는 수준이 높고 꾸준하며 경험이 풍부한 오랜 일군들과 진취적이고 새것에 민감하며 정력에 넘쳐있는 젊은 일군들을 배합하여 기술력량을 편성한것이였다.

이렇게 하니 성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몇해전 도에서 처음으로 인공잔디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새 기술연구도입조를 조직하고 식모기제작전투를 벌릴 때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과제를 대담하게 젊은 일군들에게 맡겨주었다.

그리고 젊은 일군들의 실력이 최대로 발휘되도록 오랜 기계기술자와 3대혁명소조원들로 조를 무어주었다.

오랜 기계기술자인 려정복동무는 지난 시기 쌓은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식모기의 설계와 기계제작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알려주면서 귀중한 기술자료들도 넘겨주었다.

인공잔디생산공정을 책임진 위원회의 젊은 일군들과 새 기술연구도입조의 모든 성원들은 서로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배우고 배워주면서 어려운 식모기제작은 물론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인공잔디생산공정을 완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도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책임일군으로부터 부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실력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 제기되는 새 기술도입과제를 맡아 많은 일을 척척 해제끼고있다.

이것은 곧 도의 과학기술지도단위의 바통이 보다 굳건하게 이어지는 과정이였다.

그리하여 위원회에서는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백세멘트생산공정과 동관생산기지, 마감건재생산기지를 비롯한 큼직큼직한 자력갱생기지들을 일떠세워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였다.

리일섭동무를 비롯한 위원회 일군들의 참가밑에 진행되는 과학기술심의와 가설 및 착상발표회는 집단의 실력을 높이고 위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계기로 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위원회에서는 훌륭한 과학기술적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빛반사유리와 도에서 생산하는 소금과 전력으로 가성소다, 탄산소다, 염산을 생산하는 기지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으며 돌콩이생산기지를 비롯하여 20여개의 자력갱생기지들이 본격적으로 일떠서고있다.

그 앞장에는 언제나 실력있는 젊은 일군들이 서있다.

오늘의 성과도 좋지만 래일의 전망은 더욱 락관적이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도과학기술위원회의 일군들은 더 높은 목표밑에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키며

사리원닭공장에서

축산을 과학화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사리원닭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과학기술적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여 축산물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최근에만도 이들은 실정에 맞는 먹이첨가제를 개발하여 먹이소비기준을 훨씬 낮추고 자체로 오존발생기를 만들어 수의방역사업에 리용하는 등 새 기술도입에 힘을 넣어 고기와 알생산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기술로 발전하고 과학기술로 살아가는 시대이며 실력전의 시대입니다.》

몇해전 공장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될 때였다.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을 형식적으로 꾸리려는 경향이 나타나고있었다. 그러다보니 보급실로 꾸릴 방자체도 협소하고 위치도 구석진 곳에 정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알게 된 공장일군인 권승남동무는 협의회에서 절절히 말하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는것은 당의 뜻이다. 우리는 과학기술보급실을 훌륭히 꾸리고 누구나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그날 그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고나서 과학기술보급실위치를 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과학기술보급실꾸리기사업에 낯을 적게 돌리던 일부 일군들은 자기를 심각히 돌이켜보았다.

그후 공장의 일군들의 관심속에 과학기술보급실꾸리기사업은 활기를 띠고 진행되게 되였으며 빠른 기간에 수십대의 콤퓨터를 비롯한 설비들과 비품들이 갖추어지게 되였다.

공장일군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열람할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면서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모르는 밤길을 걷기도 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종업원들을 원격교육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내밀었다.

결과 공장에서는 누구나 과학기술보급실을 즐겨찾게 되였으며 오늘은 절반이상의 종업원들이 원격교육을 받고있다.

이곳에 가게 되면 기사장은 물론 지배인과 초급당위원장까지 과학기술자료들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학습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최신과학기술을 공장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일군들은 늘 기술자, 로동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고있다.

하기에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 다른 단위에서 가져다쓰던 먹이첨가제와 수의방역에 필요한 예방약들을 자기 지방에 흔한 원료를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생산에 적극 리용함으로써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게 되였다.

이 나날 공장의 지배인, 초급당위원장, 기사장모두가 생산정상화에 절실히 필요한 먹이첨가제를 연구개발하여 과학기술성과등록증을 수여받게 되였다.

현실은 이들처럼 당의 의도대로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해나갈 때 축산물생산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파기자 신경섭

새로운 생산공정이 꾸려지기까지

순천건재공장에서

순천건재공장은 보도블로크와 크고작은 흄관을 많이 생산보장하여 도안의 중요대상건설에 크게 기여하고있는 단위로 알려져있다.

최근에 건설된 평성육아원과 애육원, 순천메기공장과 평원지구의 저수지확장공사를 비롯한 여러 대상들에는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고 전개한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남다른 일본새와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며 늘 일감을 찾아쥐고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해나가야 합니다.》

공장에서 흄관을 생산하기 시작한것은 몇해전부터였다. 그전까지만 해도 스레트나 세멘트기와 등 몇개 지표들에 대한 생산을 위주로 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공장일군들은 생각이 많았다. 도안에 건설대상들이 날로 늘어나면서 흄관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때문이였다.

일군들은 대담하게 흄관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막상 생산공정을 꾸리는데 달라붙었으나 걸린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김영호지배인은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능력을 믿고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로 결심하였다. 차순국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았다. 그때마다 일군들은 기술자들과 같이 도면을 마주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고무해주었다. 그 과정에 모두의 생각이 한곬으로 흘렀다. 전동장치와 련결된 축이 돌아가면서 쏠림현상에 의해 형타를 돌리는 동시에 혼합물을 다지게 하자는것이였다. 신심을 가진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은 설비제작에 들어갔다. 이 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지배인은 자재보장을 앞세워나갔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합쳐지고 창조적힘이 모아지는 속에 머리부가 없는 흄관을 생산할수 있는 공정이 꾸려졌다.

이 성과에 기초하여 일군들은 머리부가 있는 흄관을 생산하는데로 기술력량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기성관례대로 이 생산공정을 꾸리자면 적지 않은 설비들을 차려놓아야 했다. 일군들은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이 이 분야에서 앞선 단위들을 돌아보면서 경험을 배우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탐구의 낮과 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은 일부 부분품들을 쓰지 않고서도 흄관의 머리부를 형성할수 있는 형타를 실리있게 설계하였다. 결국 전문단위에서나 할수 있다면 형타를 제힘으로 만들어 흄관을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공장에서 러형파쇄설비를 자체로 만들어 생산물의 질을 높일수 있게 한것도 긍정적이다.

러형파쇄설비제작사업은 흄관생산공정이 꾸려진 조건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큰 자갈을 용도에 맞게 일정한 크기로 깨서 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때문이였다.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력자강의 힘을 발휘하면 못해낼 일이란 없다. 일군들은 이런 관점에서 설비제작전투를 박력있게 내밀었다.

공장에서는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사상적으로 달라붙으니 축강소재를 비롯하여 부분품제작에 필요한것들이 마련되였다. 한편 일군들은 대오의 기수가 되여 기관차적역할을 하면서 부분품들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만들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이렇게 되여 짧은 기간에 러형파쇄설비를 자체로 제작하였으며 자갈을 깨면서 나오는 돌가루도 버리지 않고 생산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되였다. 이와 함께 흄관을 비롯한 생산물들의 질이 훨씬 제고된것은 물론이다.

공장의 일군들은 말한다.

자력자강은 과학기술과 결합될 때 그 위력이 더 높이 발휘된다고.

특파기자 오철흠

조건보장을 따라세워

강계시산림경영소에서

강계시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산림조성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심은 나무들의 사름률을 높여나가고있다.

비결의 하나는 이곳 산림경영소에서 과학기술보급실운영조직을 잘 짜고든데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강화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장성에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소일군들이 산림복구전투를 벌리면서 중시한 문제의 하나는 일군들과 종업원들모두가 나무모생산으로부터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이르는 모든 일을 원리적으로 알고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해나가도록 한것이다.

이를 위하여 산림경영소의 일군들은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할수 있게 모체양묘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과학기술보급실을 훌륭히 꾸려놓았다.

그러나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았다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과학기술실무수준이 저절로 올라가는것은 아니였다. 산림복구전투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자면 누구나 선진산림과학기술을 제때에 보급받을수 있도록 조건보장을 잘해주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리철웅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기술력량을 실력이 있고 책임성이 높은 기술자들로 꾸린데 맞게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과 여러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콤퓨터망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선진산림과학기술자료들과 산림조성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단위들의 경험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어놓을수 있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이와 함께 일군들과 종업원들모두가 임의의 시각에 자료들을 열람할수 있도록 2중전원체계를 세운데 그치지 않고 산림감독원들과 종업원들이 원격교육을 받을수 있게 하였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화할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고 일군들부터 선진적인 산림과학기술을 배우는 사업에 앞장서니 종업원들속에서 과학기술학습열풍이 세차게 불어쳤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모체양묘직장 직장장 설정혁동무를 비롯한 모체양묘장의 초급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하루작업이 끝난 후에는 과학기술보급실에서 더 많은 산림과학기술을 배우기 위해 애썼다.

이들만이 아닌 산림경영소의 종업원들모두가 종자준비와 처리, 나무모기르기와 심기, 해가림발설치 등 산림조성사업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알고 실천에 옮기였다.

외진, 장자, 두흥지구 산림감독원들을 비롯한 많은 산림감독원들이 산림유반원들과 시안의 공장, 기업소의 조림분조원들에게 산림과학기술을 보급하여 그들이 숲사이나무모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심은 나무들의 사름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우리는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는것과 함께 그 운영을 위한 조건보장을 잘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다시금 새겨안게 된다.

특파기자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화대군 사포협동농장에서

화대군 사포협동농장에서는 해마다 맡겨진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비결은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인데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해 농장에서는 강냉이여러개체모아심기방법을 모든 포전들에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일부 작업반, 분조들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 의문시하면서 선뜻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문제는 일부 농장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경험주의에 있었다. 지금 하고있는 재배방법으로도 농사를 잘 지을수 있는데 구태여 앞선 재배방법을 또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농장은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때문에 수확고를 높이자면 뭐니뭐니해도 밀식재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농장원들도 있었다.

농장일군들은 작업반, 분조들에 강냉이여러개체모아심기방법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일률적으로 내려먹이지 않았다.

농장원들에게 앞선 재배방법의 우월성을 실천을 통해 체득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탐구하였다.

일군들은 정리방의 강냉이농사에 앞선 재배방법을 도입하도록 하고 작업반마다에는 30정정도의 시험포전을 꾸리게 하였다.

강냉이여러개체모아심기방법의 우월성은 실물로 증명되였다. 정당 수확고에서 차이가 났던것이다.

농장에서는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고 참가자들에게 앞선 재배방법의 우월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이를 계기로 농장원들은 이 방법을 받아들이면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강냉이농사를 잘 지을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일군들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앞선 재배방법에 대한 농장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한 과학기술학습을 짜고들었다.

그리고 일군들이 작업반, 분조들에 내려가 앞선 재배방법의 우월성에 대한 해설을 실감있게 진행하였다.

방법론있게 진행되는 해설과 학습, 보여주기사업을 통하여 농장원들은 앞선 재배방법의 우월성을 잘 알게 되였으며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자면 경험주의에 매달리지 말고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였다.

올해 농장에서는 강냉이여러개체모아심기방법을 거의 모든 포전들에 받아들여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지난해보다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의 도입, 바로 여기에 알곡증수의 비결이 있습니다.》

농장일군의 신심넘친 말이다.

모든 단위들에서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일 때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농사를 안전하게 더 잘 지을수 있으며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장원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작전가, 실천가가 되여

신의주시일군들

신의주시에서 자갈생산기지를 꾸려놓고 도로포장공사에 필요한 자갈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이것은 일군들이 자기 단위 사업은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작전가, 실천가가 되여 무슨 일이나 대담하게 설계하고 통이 크게 내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하순 어느날이였다.

시안의 일군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아 한해사업을 총화하고 도로포장공사에 필요한 자갈을 보장하는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의논하였다. 자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설비들을 제작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그러나 파쇄설비를 제작하자면 풀어야 할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한동안 사색에 잠겨있던 리재남시당위원장은 일군들을 믿음어린 눈길로 둘러보면서 말하였다.

《신의주시를 국경도시답게 훌륭히 꾸리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기 사업은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진다는 립장을 가지고 도로포장에 필요한 자갈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여야 합니다.》

자갈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보장해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하는 책임일군을 바라보며 모여앉은 일군들은 지난 시기 자갈보장사업을 손쉬운 방법으로 해온 자신들의 그릇된 일본새를 심각히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시에서는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자갈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할수 있는 기지를 꾸리기로 하였다.

토론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일부 단위들에 사장되어있는 파쇄기, 전동기 등 설비들을 동원리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일단 방도가 생기자 일군들이 분발해나섰다.

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정렬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필요한 설비들을 시도시건설사업소에 집중시키면서 신발창이 닳도록 뛰였다. 그리하여 자갈생산에 필요한 실무적인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였다.

그때로부터 며칠후 동하동지구의 어느 한 곳에서 여러가지 설비들을 수리정비하여 설치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와 함께 어느 한 광산의 버럭을 집중수송하기 위한 사업과 생산현장에 전력을 보장하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였다.

결과 며칠후 자갈을 생산하는 설비들의 동음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시도시건설사업소 지배인 리복식, 파쇄종합작업반 반장 김영성, 공무작업반 반장 김철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책임성이 높고 전개력이 있는 일군을 현장에 파견하여 자갈생산조직을 빈틈없이 하도록 하였다.

책임일군들은 수시로 현장에 나와 자갈생산실태를 알아보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었다.

일군들은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짜고들어 풍성한 식탁이 차려지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작업복을 비롯한 로동보호물자도 마련해주면서 대중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지난 4월말까지 수천㎥의 자갈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힘찬 투쟁을 벌려 도로포장에 필요한 자갈을 종전보다 2배이상이나 생산보장하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실천적경험은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당정책관철의 기수들인 일군들이 자기 단위 사업은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대담하게 작전하고 실천해나갈 때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학생들의 실천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실기교육을 강화해나가고있다.

—평양교원대학에서— 김광림 찍음

《우리의 일터를 사랑합니다》

대동강구역화초사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쌀비아, 페튜니아, 제라니움, 만수국…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이곳은 대동강구역화초사업소에서 관리하고있는 문수화초공원이다.

향기로운 꽃속에 묻혀있는 이곳에서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우리는 마침 공원을 관리하고있는 한사람을 만나게 되였다.

그는 사업소종업원인 김정만동무였다. 그는 우리에게 사업소의 화초재배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사업소에서는 화초를 한해에 여러번 재배하는데 현재 공원과 거리에 피여난 꽃들은 올해 2월부터 온실에서 자래운 꽃들이였다.

봄부터 가을까지 거리에 늘 꽃이 만발하게 하자면 한해에 10만여포기의 꽃을 가꾸어야 한다는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수도의 거리를 더욱 아름답게 꾸리고 수도시민들에게 문화정서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주기 위해 헌신하고있는 이곳 종업원들의 수고를 헤아릴수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운것은 그렇게 정성들여 키운 꽃을 장난 세찬 아이들이 꺾어놓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는것이였다.

종업원들에게서 그런 의견을 들을 때마다 사업소초급당일군인 박성진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그는 종업원들에게 말하였다.

꽃도 가꾸고 철없는 어린것들의 마음에 애국심도 심어주어야 한다고.

그날부터 공원에 찾아오는 유치원어린이나 소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사업이 진행되였다.

점차 꽃을 꺾거나 꽃밭을 못쓰게 만드는 현상이 없어졌으며 이 과정에 종업원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비록 크지 않아도 참된 애국사업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되였다.

사업소에는 오랜 기간 애국의 마음을 안고 누가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수도 평양의 아름다움을 가꾸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가운데는 혁명가유자녀인 김금선동무도 있었다.

그의 심장속에 언제나 세차게 맥박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했던 항일혁명투사인 할아버지처럼 오직 당을 받들어 한생을 빛나게 살려는 불타는 충정의 맹세였다.

그는 오늘도 내 나라 금수강산에 향기그윽한 백화가 만발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받드는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우리에게는 대동강구역의 거리들에 활짝 피여난 꽃송이들이 무심히 안겨오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한송이 한송이에 바쳐진 사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이 뜨겁게 새겨졌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우리의 일터를 사랑합니다.》

유광진

수십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 이룩

원산수산대학에서 최근년간 나라의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십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수산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데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대학의 일군들은 교원, 연구사들이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모를 박고 탐구전, 창조전을 벌리도록 하는 한편 그들의 연구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자체의 힘으로 양어먹이발효첨가제생산기지를 그쯘하게 꾸려놓은 수산과학연구소 연구사들은 물고기알영양면역강화제를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피타는 사색과 노력을 기울여 새끼물고기들의 사름률과 증체률을 높일수 있는 연구성과를 달성하였다.

바다나물연구실에서는 수심이 1-5m인 얕은 해변가에서 떼와 바줄의 소비를 극력 줄이면서도 종전보다 2배이상의 수확을 거둘수 있는 우리 식의 바다식참미역양식기술을 개발하였다.

두뇌전, 기술전의 열풍속에 어로강좌에서는 수시로 변하는 어황상태에 따라 수평, 수직조준을 알맞춤하게 하여 기망당 어획고를 높일수 있는 새로운 어로방법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생산성을 1.3배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양식강좌의 교원들은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우렁쉥이에 대한 연구사업을 본때있게 다그쳐 동해에서 밤조개 등을 대대적으로 인공번식시킬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정보기술교류소에서는 짧은 기간에 실용성있는 프로그람을 개발하여 어로공들이 먼바다에서 해양기상상태와 어황실태를 실시간으로 료해분석함으로써 어로작업을 보다 과학화할수 있게 하였으며 600W LED 수중등을 연구제작하여 수산부문에 광범히 도입할수 있게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천리마동상이 일떠서기까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시기 우리 인민이 벌려온 영웅적투쟁은 다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령도와 결부되여있습니다.》

조선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시위하는 력사적인 기념비로, 천리마조선, 주체조선의 상징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는 천리마동상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천품,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이 깃들어있다.

강선의 로동계급이 추켜든 천리마운동의 봉화가 전국에 거세찬 불길로 타번지고있던 시기인 주체48(1959)년 4월 당시 모란봉 경상골의 청년공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수대언덕에 천리마시대를 상징하는 기념탑을 하나 세워야겠다고, 동상은 말같은것을 형상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일로 분망하신 속에서도 천리마동상건립을 위한 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대책들을 세워주시였으며 그후 당시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조각분과 조각가들과 전국각지에서 소환해온 수십명의 조각가들로 조각창작단을 무어주시였다.

그리하여 강력한 기념비미술창작집단인 조각창작단이 무어지고 이때로부터 기념비조각의 새로운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시대의 기념비인 천리마동상을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은 조각가들은 흥분된 마음을 안고 초안창작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초안창작은 처음부터 순조롭게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조각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리마동상초안을 보아주신다는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그때 조각가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초안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이 각각 한필씩 세필의 말을 타고 내달리는 모습을 형상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8(1959)년 11월 17일 천리마동상초안을 지도하여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초안을 보시고 주되는 말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것이 결함이라고 하시면서 말을 세필로 하지 말고 한필로 하면서 각계각층 군중을 대표하여 남자와 녀자가 탄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구체적인 형상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천리마는 비상히 빠른것을 상징하는 동물이므로 말에 날개를 달고 말을 한필로 하여 남녀가 타되 남자는 붉은 편지를 들고 녀자는 무슨 기구같은것을 들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다음해 2월 조각가들이 3개안으로 다시 만든 초안들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 농민을 태운 천리마가 구름을 박차고 달리는 안이 좋을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 초안을 기본으로 하여 천리마동상을 완성할수 있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3월에는 천리마동상의 축소모형을 보아주시고 천리마동상은 천리마시대를 상징하는 기념비인데 원형과 꼭같은 크기로 모형을 만들어세워놓고 다시한번 보자고, 인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자고 하시였다.

조각가들은 그날로 결의모임을 가지고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실물과 꼭같은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현지에 세우고 두권의 의견기록부를 그밑에 걸어놓았다. 천리마동상이 일떠선다는 소식을 들은 각계층 인민들은 앞을 다투어 만수대언덕으로 달려와 자기들의 의견을 기탄없이 적어놓았다.

두툼한 의견기록부에 빼곡이 적혀있는 의견에서 공통적인것은 동상이 좀 작다는것이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49(1960)년 6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리마동상의 모형을 또다시 보아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며칠전에 지방에 나가면서 올려다보니 좀 작은것 같더라고, 자신의 생각같아서는 지금보다 2배로 확장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천리마시대를 상징하는것인데 올해 8.15가 아니라 다음해까지 하더라도 좀 크게 하여야겠다고 하시며 조각가들의 창작적안목을 넓혀주시였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예술적천품을 지니시고 천리마동상건립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창작성과를 조각가들에게 다 돌려주시였다.

주체50(1961)년 4월 15일 천리마동상제막식에 나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천리마동상을 조각한 동무들은 다 영웅이라고 조각가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리마동상창작집단인 조각창작단을 모체로 하여 세계굴지의 미술창작기지인 만수대창작사를 꾸려주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리마동상 첫 초안을 지도해주신 주체48(1959)년 11월 17일을 만수대창작사 창립일로 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공화국창건 70돐을 향한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오늘 우리 인민은 천리마동상을 바라보며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 천리마시대를 열어주시고 조선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시위하는 시대의 기념비를 훌륭히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더불어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세만세 길이 빛내여갈 불타는 일념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백성근

각지에서 보내여온 글작품들을 보고

어머니당에 드리는 인민의 노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뜨겁고도 진실한 사상감정의 반영, 소박하고 생활적이면서도 독특한 시어들의 활용.

보면 볼수록 감명이 커지는 독자들의 글작품들이였다.

본사편집국으로 각지 독자들이 보내여온 글작품들속에 하나로 관통되여있는것은 어머니당에 대한 뜨거운 흠모의 정, 그 품속에 사는 한없는 긍지였다.

이런 글작품들을 볼때마다 우리는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뜻과 정으로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에 대하여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는 우리 당의 생명력의 원천이고 사회주의의 불패성의 담보입니다.》

온산군 읍에서 살고있는 한 전쟁로병은 세월이 갈수록 인민들을 위해 베푸는 우리 당의 하늘같은 은정에 대한 고마움이 더더욱 가슴속에 넘쳐난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그 눈빛》이라는 제목의 가사를 보내여왔다.

가사에서 로병은 어머니의 그 눈빛은 따뜻한 봄빛과도 같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과도 같다고 하면서 다심한 사랑과 뜨거운 정으로 이 나라 천만자식들을 보살펴주는 조선로동당의 품은 곧 크나큰 행복의 요람이라고 절절하게 노래하였다.

평성시에서 살고있는 한 주민이 보내온 4편의 작품들에도 어머니당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충정의 마음이 차넘친다.

작품들에서 그는 우리 조국의 존엄을 높이 떨쳐준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기에 오늘의 행복도, 번영할 래일도 있다고 하면서 당을 따라 한길만을 갈 불같은 결의를 담았다.

특히 가사 《만복이 오네》에서 그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고향땅에 만복이 온다고 하면서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진리를 실감있게 반영하였다.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가는 위대한 당의 령도아래 천지개벽이 이룩되고있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노래한 작품은 이뿐만이 아니다.

과일군에서 살고있는 어느 한 주민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고향땅에 백리청춘과원이 펼쳐진 자랑을 담은 가사 《백리청춘과원 무릉도원 자랑하세》를 보내여왔다.

가사에서 봄날이면 꽃바다로 풍벌, 나비가 날아들고 가을이면 무르익은 과일폭포가 쏟아지는 청춘과원에 대하여 노래하면서 그는 이 행복을 안겨준 위대한 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열렬히 토로하였다.

…

과일향기 넘쳐나는 내 고향의
무릉도원
천년만년 자랑하세 원수님의
그 은덕을

…

아름다운 우리 생활에 넘치는 향기가 그대로 시어로 된 이런 작품들과 함께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노래한 작품도 있다.

함흥시 흥덕구역체신소에서 일하고있는 한춘실동무는 당보에 실린 우편통신원들에 대한 기사를 읽고 흥분된 심정을 누를길 없어 펜을 들었다고 하면서 가사 《우리 통신원》을 보내여왔다.

일터에 가면 인민들이 좋아
합니다
원수님 소식 안고왔다 기뻐
합니다
날마다 당의 목소리 전하여
주는 우리를
사람들은 정답이 부른답니다
우리 통신원

…

그는 가사에서 우편가방은 크지 않아도 천만금의 무게에도 비길수 없다고 하면서 언제나 당의 목소리를 안고 살고싶어하는 우리 인민들이기에 누구나 우편통신원들을 기다리며 찾는다고 하였다.

참으로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과 정다운 일터에서, 나날이 변모되여가는 고향땅의 모습에서 우리 당의 위대함을 더욱 절감한 우리 인민이다.

독자들의 글작품들은 그대로 어머니당에 삼가 드리는 고마움의 노래, 영원히 그 품만 믿고 따를 신념의 노래이다.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당,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위대한 당에 드리는 인민들의 열화같은 흠모의 노래는 이 땅우에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김 수 정

행복의 노래소리 높이 울리는 곳

녕원군학생소년회관을 찾아서

녕원군 읍거리에 들어서서 얼마동안 가느라면 나지막한 언덕우에 덩실 솟은 건물이 보인다. 군학생소년회관이다.

산골군의 특유한 정서를 더해주며 울려나오는 학생들의 청아한 노래소리에 이끌려 우리는 녕원군학생소년회관을 찾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나아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음입니다.》

건물은 겉보기에도 훌륭하였지만 내부도 매우 아담하였다.

우리를 맞이한 김상철관장은 군당위원회와 군청년동맹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밑에 지난해 회관이 새로 건설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학생소년회관을 새로 번듯하게 지어놓으니 학생들과 지도교원들은 물론 학부형들모두가 좋아합니다. 소조활동을 통하여 소조원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는것은 회관운영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 회관의 지도교원들은 학생들의 재능을 꽃피워주기 위하여 힘과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초과학소조실을 찾았다.

20여명의 학생들이 지도교원의 지도를 받으며 풍부한 지식의 세계를 파고드느라 여념이 없었다.

국가콤퓨터망을 통하여 필요한 교재들도 척척 리용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보다 어려운 학습과제들도 풀어가는 학생들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였다.

공부에 열중하고있는 소조원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며 관장은 소조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기 학급이나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있다고, 소조원들속에서 7.15최우등상수상자들도 배출된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이윽하여 우리는 성악소조실과 손풍금소조실을 비롯한 다른 소조실들도 돌아보았다.

소조실마다가 배움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있었다. 악보가 펼쳐진 보면대를 마주하고 열성껏 손풍금연주의 묘리를 터득해가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어은금도 타고 노래도 부르면서 형상을 익혀가는 학생들도 있었다.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펴고 나서자란 고향땅의 하늘가에 행복의 노래소리를 보란듯이 울려가는 학생들의 모습은 볼수록 대견하였다.

자식들이 회관에서 마음껏 재능을 꽃피우니 학부형들도 무척 좋아하고 관심도 크겠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관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읍에서 멀리 떨어진 리들에서 아이들을 소조에 보낸 어떤 학부형들은 집떠난 자식이 그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대로 공부를 하는지 걱정이 되여 면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이런 훌륭한 곳에서 도시학생들 부럽지 않게 재능을 키워가는것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격정을 터놓군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식들을 더 잘 키워달라는 학부형들의 당부를 무심히 대할수 없다고, 학부형들의 그 부탁에는 자기 자식을 더 잘 키우고싶은 부모의 심정만이 아니라 나서자란 고향인 녕원땅을 대를 이어 더욱 훌륭하게 꾸리고 빛내여가려는 소중한 마음이 어려있다고, 하기에 모든 지도교원들이 그들의 마음을 담아 학생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곳 회관의 지도교원들은 학생들을 보다 훌륭히 키우기 위하여 과외교양지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같이 토의하고 좋은 경험들을 서로 나누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으며 그 과정에 교육자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새 세대들의 행복넘친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는 녕원땅의 과외교양기지.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을 바쳐가는 교육자들의 불같은 열정만이 아니라 머나먼 산골군에도 따뜻이 흘러드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빛발이 어려있기에 우리에게는 이 학생소년회관이 더없이 정답고 웅장하게 안겨왔다.

학생소년회관을 나서며 우리는 확신하였다. 우리 당의 은정이 어린 과외교양기지에서 이 고장 인민들을 기쁘게 하는 재간둥이들, 보다 훌륭할 내 조국의 래일을 앞당겨올 미래의 주인공들이 더 많이 나올것이라는것을.

본사기자 우정혁

공화국력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지식인들

공로있는 고고학자 채희국

김일성상계관인이며 후보원사, 교수, 박사인 채희국선생은 후대교육사업과 력사연구에 크게 이바지한 권위있는 고고학자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절세의 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서 지난날 곡절많은 생활의 길을 걸어온 오랜 지식인들도 우리 제도에서 자라난 새 세대 지식인들도 다같이 보람찬 과학탐구의 한길을 걸으며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 값높은 삶을 빛내여올수 있었습니다.》

1918년 9월 충청북도에서 태여난 채희국선생은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유년시절을 보내였다. 우리 민족의 력사를 탐구할 남다른 꿈을 안고있던 채희국선생은 고고학연구를 위하여 피타게 노력하였지만 식민지지식인의 불우한 운명을 피할수 없었다.

자기 조국의 력사를 연구한다는 죄 아닌 《죄》로 감시대상이 된 채희국선생은 가는 곳마다에서 갖은 수모와 멸시를 받았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서야 채희국선생은 그처럼 소원했던 력사연구의 꿈을 활짝 꽃피울수 있었다.

채희국선생을 근로인민의 첫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교원으로, 강좌장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가 마음껏 후대교육과 력사연구에 전심할수 있도록 하여주시였다.

고구려에 대한 력사연구에 전심해온 채희국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대성산의 고구려유적발굴,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유적발굴 등 여러 력사유적발굴사업에 참가하였으며 동명왕릉, 황전왕릉, 단군릉개건사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과학적통찰력과 비범한 예지, 해박한 력사지식을 지니시고 력사연구로 한생을 살아온 학자들도 미처 알지 못하고있던 문제들까지도 명백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숭엄히 우러르며 채희국선생은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스승을 높이 모신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하여 가슴이 세차게 끓어번지군 하였다.

채희국선생은 력사연구과정에 《고구려시조 동명성왕》, 《대성산일대의 고구려유적에 관한 연구》,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유적》, 《고구려력사연구》를 비롯한 수많은 교과서와 참고서, 론문들을 집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학분야에서 커다란 공적을 세운 그를 잊지 않으시고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뜻깊은 날에는 금수산의사당(당시)으로 채희국선생을 불러주시고 외국의 수반들과 당과 국가의 간부들에게 《우리 로박사입니다.》라고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소개하시였다.

진정 우리 로박사라는 뜻깊은 부름은 반만년의 유구한 조국력사를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는 우리 수령님께서 력사연구에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채희국선생에게 안겨주신 값높은 표창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처음으로 맞는 태양절을 하루 앞둔 주체84(1995)년 4월 14일 채희국선생에게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금시계를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태양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으며 고령의 몸에도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안고 민족력사연구사업에 전심해온 채희국선생, 그는 오늘도 영생의 언덕에서 우리 지식인들의 삶은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만 끝없이 빛나게 된다는것을 말없이 가르쳐주고있다.

본사기자

새 기술 소식

새로운 일산화탄소저온변성기술

최근 에네르기절약문제가 증시되면서 여러 나라들에서 암모니아를 합성하기 위한 일산화탄소변성에 새로운 저온변성기술을 받아들이고있다.

암모니아합성을 위한 일산화탄소변성에 새로운 저온변성기술을 받아들이면 에네르기를 절약하면서도 기술경제적효과성을 높일수 있다.

일반적으로 석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합성공정에서 일산화탄소변성은 원료가스속의 일산화탄소를 일정한 온도에서 변성촉매를 리용하여 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얻어내는 공정이다.

지난 시기에는 고온, 중온변성기술이 리용되였으나 이 기술들에서는 반응온도가 높으므로 많은 에네르기가 소비되였다.

낮은 온도에서도 활성을 나타내는 촉매들이 련이어 개발되면서 일산화탄소변성기술은 중온변성기술로부터 중저온변성기술, 저온변성기술로 발전하여 변성공정에서의 에네르기소비를 많이 낮출수 있었다.

그러나 일산화탄소변성은 전형적인 발열반응과정이므로 저온변성공정에서도 반응온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대의 변성탑에서 다단변성을 진행하는것과 함께 매개 변성탑에 랭각수를 넣어주거나 변성탑들사이에 열교환기들을 설치하여 반응열을 제거하여야 하였다.

이로부터 변성공정이 복잡하고 투자가 많이 드는 등의 부족점이 있었다. 이러한 부족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변성공정을 간단하게 하면서도 에네르기소비를 보다 더 줄일수 있는 새로운 일산화탄소저온변성기술이 개발되게 되였다.

새로운 일산화탄소저온변성기술은 변성탑안의 촉매층에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탑안의 반응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함으로써 지난 시기와 달리 한대의 변성탑에서 일산화탄소를 변성시키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지난 시기의 저온변성기술에 비하여 공정이 간단하고 에네르기소비가 적으며 일산화탄소변성률이 높을뿐만아니라 촉매를 오래 쓸수 있어 여러모로 우월하다.

련속주조에서 전자기교반기술의 발전

여러 나라들에서 합금강을 비롯한 여러가지 강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련속주조공정에 합리적인 전자기교반기술을 받아들여 강편의 질을 높이고있다.

일반적으로 련속주조는 쇳물을 결정기에서 강제랭각시켜 강편을 련속적으로 뽑아내는 생산성이 높은 주조방법이다.

그러나 련속주조할 때 급랭과정에 원소들이 고르롭게 분포되지 못하여 편석되거나 내부응력에 의하여 겉면터짐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현상을 없애기 위하여 여러 나라들에서는 전자기교반기술을 받아들이고있다.

전자기교반은 쇳물을 자기마당속에서 전자기적힘으로 교반시킴으로써 련속주조할 때 여러가지 합금원소들을 균일하게 분포시키고 강편의 결정조직을 고르롭고 미세하게 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종전의 단일한 전자기교반방법으로는 련속주조하는 합금강편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로부터 여러 나라들에서는 합금강 등을 련속주조하면서도 강편의 질을 보장할수 있도록 전자기교반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있다.

최근 련속주조에서 전자기교반기술은 전자기교반장치의 설치방식과 구조, 조종기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여러 나라들에서는 합금강의 련속주조강편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없애기 위하여 해당 강종에 알맞는 합리적인 전자기교반장치설치방식을 받아들이고있다.

또한 쌍유도권선을 설치한 전자기교반장치를 받아들이고 가속 및 감속과 교반기능을 가진 다기능전자기교반장치를 개발리용하여 합금강편의 겉면결함과 기공률을 대폭 감소시키고있다.

본사기자

지하레이다탐사와 발전추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지질탐사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기본열쇠는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탐사수단과 방법을 현대화, 정보화하는데 있습니다.》

지하레이다탐사는 고주파대역의 전자기파를 땅속으로 복사한 후 지층경계, 파쇄대, 공동, 매설관 등과 같은 탐지대상물로부터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수신안테나를 통하여 기록하고 처리분석하여 지하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는 지구물리탐사방법이다.

이 탐사법은 지상레이다기술을 지하대상물을 탐지하는데 리용할 목적으로 착상되였다.

지하레이다탐사는 구조가 복잡한 매질을 대상으로 하므로 매우 정밀한 기구와 자료처리 및 해석방법이 필요하다.

이 탐사법은 초기에 극지방의 얼음층 등에 대한 조사에 적용하였다. 전자공학기술, 콤퓨터기술, 수학적처리기술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하여 현대적인 지하레이다탐사설비들이 출현하고 응용범위가 확대되여 환경조사, 건설, 농업, 지하자원탐사, 유적유물발굴 등 많은 분야에서 제기되는 현실적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있다.

현재 실용화되고있는 지하레이다기구들은 지속시간이 매우 짧은 고주파임풀스들을 리용하거나 여러가지 변조기술들을 결합하여 쓰고 최신신호처리기술 등을 리용하기때문에 분해능이 높으며 신호대잡음비가 크고 현시화상의 질이 높다.

지하레이다탐사는 여러가지 우점을 가지고있다.

우선 작업주파수가 수십~수천MHz에 달하므로 분해능이 높고 고성능콤퓨터와 분석처리기술로 탐지대상체의 크기, 기하학적형태와 물리적특징을 정확히 반영하는 레이다화상을 얻을수 있다.

또한 지하레이다기구가 비교적 간편하여 휴대하고 작업할수 있으며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수 있으며 탐사속도도 빠르다.

지하레이다기구는 여러가지 안테나를 조사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혹은 병행하여 쓸수 있고 지하매질의 유전률, 전도도, 투자률과 같은 특성들을 측정하여 금속뿐아니라 비금속물체들도 탐사할수 있으므로 자원탐사, 재해방지, 환경조사, 도로, 철도, 차굴 등의 안전성검사, 유적유물조사, 폭발물탐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리용되고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첨단탐사기술의 하나인 지하레이다탐사에서 지하레이다화상에 대한 경험적식별, 지하레이다탐지대상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극복하고 탐지대상체의 정확한 화상을 얻기 위한 기구현대화와 해석방법개선을 위한 문제들이 많이 연구되고있다.

황북종합대학 박사 부교수 김봉남

당의 과학농사방침을 높이 받들고 농업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가고있다. —농업연구원 식물보호학연구소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세계 여러 나라의 유적들

꾸스꼬유적

페루의 꾸스꼬는 먼 옛날 인까제국의 수도였다.

인까제국을 일떠세운 인까족은 매우 정교한 석축기술을 가지고있었는데 싸우아만이라고 불리우는 성새는 그 대표적인 건축물의 하나이다.

16세기 꾸스꼬를 강점한 에스빠냐인들은 새로 건설하는 성당이나 수도원의 기초를 쌓는데서 인까족의 기술을 그대로 리용하였는데 그 실례로 인까족의 태양의 신전의 구조를 리용한 수도원을 들수 있다.

이처럼 인까시대와 에스빠냐식민지시대를 보여주는 건축물들이 결합된 거리들은 오늘도 꾸스꼬의 력사를 그대로 전해주고있다.

이스딴불의 력사지구

뛰르끼예의 이스딴불은 아시아와 유럽, 흑해와 지중해를 련결하는 중요한 지대에 위치한 도시로서 먼 옛날 로마제국의 수도로 있었으며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다.

그후 오스만제국의 수도로 된 이후 지금의 이스딴불로 이름이 고쳐지게 되였다.

이스딴불에는 아야 쏘피아대성당과 토프카프궁전, 술레이마니예사원을 비롯한 많은 유적들이 있다.

본사기자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안으신 대성인

위인에 대한 숭배는 이룩한 업적과 함께 그이에 대한 인간적매혹으로 더욱 열렬해지고 공고해지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특출한 인간적매력으로 천만사람들의 심장을 순간에 틀어잡은분이시다.

하기에 진보적인류는 물론 코대높던 대국의 정객들까지도 위대한 장군님을 인간중의 인간, 대성인이시라고 하면서 끝없이 흠모하고 우러르며 따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늘 믿음과 사랑으로 새 사회를 건설하자고 말하는데 나는 그의 이 말이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릇 사람들은 참인간만이 뜨거운 인간애를 지닐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무궤넬수도 지어넬수도 없는 사회적인간의 참된 감정이고 고유한 본성이며 인간사회의 미덕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은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인간애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만민을 한품에 안아 태양의 열과 같은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인덕의 최고화신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에 의해 사경에서 구원되여 삶의 행복을 찾은 외국인들이 적지 않다. 그 행운아들속에는 우리 나라 주제 에짚트 아랍공화국대사관 성원이였던 와일 바라카트도 있다.

1994년 11월 와일 바라카트는 뜻하지 않은 일로 인체내의 중요장기들에 심한 손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채 정양원선병원으로 실려오게 되였다.

오랜 경험을 가진 의사들도 선뜻 수술칼을 들 용단을 못 내렸다. 머나먼 에짚트에서 달려온 그의 어머니마저도 아들의 정상을 보고 모든것을 단념하고 있었다.

그러한 때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경에 처한 그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다 세워주시였다.

10여명의 유능한 의사들로 강력한 의료진이 무어졌고 최신 의료설비들과 약품들이 아낌없이 들려졌으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료전투가 벌어졌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한달나마 생사기로에서 헤매던 그가 의식을 회복하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는 완쾌된 몸으로 병원문을 나설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은 와일 바라카트로 하여금 죽음을 이겨내게 하였다.

옛 신화에서만 들어온 이야기를 현실로 체험하게 된 와일의 어머니와 대사관성원들은 감격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이신 김정일각하께서는 나의 아들을 위하여 끝없는 육친적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코나큰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일각하이시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이십니다.》

이것은 와일의 어머니가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삼가 올린 감사의 인사였다.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다. 1981년 7월 어느날 우리 나라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어느 한 나라의 수도를 향해 날고있었다. 비행기에는 우리 나라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당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이였던 고빈드 나라인 스리바스타바가 타고있었다.

떠날 때부터 편치 않던 고빈드의 몸상태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비행기가 어느 한 나라의 비행장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상태가 악화되여 어쩔수없이 그 나라의 병원에 실려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더욱이 입원치료를 받고있던 그에게로 뜻밖에도 우리 나라의 한 일군이 의사를 데리고 찾아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빈드가 귀국도중 외국의 한 병원에 입원하여 병치료를 받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걱정하시면서 유능한 의사와 함께 귀중한 약제를 보내주시였던것이다. 그로부터 며칠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침상에 누워있느라면 조국에 있는 아들이 보고싶을것이라고 하시며 고빈드의 아들을 그의 곁에 보내주도록 하시는 온정깊은 조치까지 취해주시였다.

고빈드의 충격은 참으로 컸다. 사실 그는 우리 나라 방문을 통하여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수도 느낄수도 없었던 인간사랑의 전설같은 헌신을 보고 들고 느끼였으며 뜨거운 인간애와 숭고한 덕망으로 인민을 위한 인덕정치를 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풍모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었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 어떤 자산가도, 명망높은 정치가도 아닌 정법한 외국인인 자기에게 미쳐졌으니 참으로 그가 받은 감격이 크지 않을수 없었다.

고빈드는 이렇게 감격을 터쳤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과 믿음을 받으며 사는것이상 더 큰 행복은 없다. 왜냐하면 사랑과 믿음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에게 줄수 있는 가장 최대의것이기때문이다. 하기는 만민이 우러르는 위대한분으로부터 사랑과 믿음을 받는다고 할때 그 행복, 그 영광을 어디에 비기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나는 나자신을 이 세상의 행운아라고 말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장군님께 매혹된 고빈드의 진심의 고백이고 심장의 토침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서 새 생명을 받아안은 외국의 벗들은 비단 이들뿐이 아니다.

1989년 8월 우리 나라 주재 팔레스티나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뜻하지 않은 일로 사경에 처하게 되였다. 상태가 너무도 절망적이여서 치료를 맡은 의료집단도 실망감에 사로잡혀 소생치료사업을 완전히 포기하다싶이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꼭 살려내야 한다고 하시며 전국의 이름있는 의료일군들을 다 동원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강력한 의료진이 무어지고 모든 수단이 총동원되였다. 의사들은 집중적인 치료전투를 벌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덕정치, 사랑과 믿음의 정치의 대화원속에서 환자는 기적적으로 소생하였다.

진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세계를 품어안으신 대성인이시다.

본사기자 손 소 연

2018년 6월 12일은 세계력사에 기록될것이다

여러 나라 정부, 정당, 단체들 성명 발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국대통령과 력사상 최초로 되는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신 소식이 세계 각국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꾸바, 네팔, 만마, 캄보자, 타이, 이란, 슬로벤스꼬, 체스꼬, 아르메니야, 뒤르끼예, 폴스까, 메히꼬, 카나다, 페루, 칠레, 까타르,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정부, 정당, 단체들은 성명을 통하여 이번 상봉과 회담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하고 조미사이의 관계개선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평가하였다.

나이제리아외무성은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 사이의 상봉과 회담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환영한다, 최근 조선정부가 취하고있는 조치들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의지의 표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뒤르끼예외무성은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에짚트외무성도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마련된 훌륭한 결과는 조선반도에서 초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현하는데 기여할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외무성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조미 두 나라 정부의 립장을 지지한다고 하였으며 네팔외무성은 공동성명이 리행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성명하였다.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는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의 채택을 조선반도의 평화를 추동하고 지역에서 보다 긍정적인 정세발전의 길을 열어놓은 결단으로 평가하였다.

에티오피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주체사상연구 에티오피아협회, 에티오피아-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는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의 채택을 세계가 바라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공동성명을 열렬히 지지하며 세계 진보적인류와 련대하여 성명이 리행되도록 노력할것이다고 밝혔다.

로므니아근로자협회는 싱가포르에서 조미수뇌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된것을 환영한다, 조선반도문제에 관련이 있는 나라들도 건설적인 자세에서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것이다고 성명하였다.

백두산위인칭송국제촉진 스위스조직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력사적인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수십년간에 걸치는 두 나라사이의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조미관계개선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2018년 6월 12일은 세계력사에 기록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위원장께와 조선의 당과 정부, 인민에게 다시한번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수립과 조미관계개선을 지지한다!

【조선중앙통신】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서명운동 선포

얼마전 남조선의 민주로총 대전본부가 시청앞에서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요구하는 대전지역 로동자선언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모임에서 민주로총 대전본부 본부장은 판문점선언에는 로동자들이 바라던 평화통일의 시대정신이 명확하게 담겨있다고 하면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은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민중의 념원을 풀어주는 력사적인 사변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올해 8.15까지 대전지역 로동자들을 대상으로 서명활동형태의 로동자선언운동을 전개할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로조 대전지방본부도 로동자선언운동에 적극 참가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로동자선언운동과 관련한 서명문건에는 《판문점선언지지》, 《대전로동자 앞장서서 조국통일 이룩하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로 영구적인 평화시대 만들자.》, 《분렬적폐청산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투쟁에 나설것을 선언한다.》 등의 내용이 로함되여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이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8돐을 계기로 판문점선언의 리행과 조국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서울에서는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민가협량심수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화협정체결운동본부 등 여러 단체들의 참가하에 6.15공동선언발표 18돐을 기념하는 체육대회가 열리였다. 통일을 위한 길에서 여러 단체들사이의 련대를 강화할 목적밑에 2011년부터 해마다 진행되고있는 이 체육대회에서는 축구경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경기들이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앞길에 중대한 전환적국면이 열리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체육대회를 통하여 6.15공동선언발표 18돐을 기념하고 판문점선언의 철저한 리행을 결의다지는것은 실로 의의있는 일로 된다고 자신들의 심정을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통일의 앞길에 아무리 시련과 난관이 많다고 하여도 각계 단체들이 뜻과 힘을 합쳐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자주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올것이라고 다짐하였다. 한편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통일마라손대회가 진행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가 주최한 행사에는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가 열리는 력동적인 시기에 통일마라손대회가 진행되는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면서 《판문점선언과 함께 평화로! 통일로!》라는 구호를 힘차게 웨치였다.

한 통일운동단체인사는 해마다 통일마라손대회가 진행되였지만 올해처럼 큰 감동을 받아본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판문점선언을 리행하여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겠다고 결의다졌다.

리 홍 철

자주통일에 이바지할것을 다짐

라오스의 어제와 오늘

라오스인민은 한때 외래식민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왔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속에서 피눈물나는 생활을 강요당해온 라오스인민은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1945년 10월 독립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라오스땅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지배의 마수가 끈질기게 뻗쳐왔다.

라오스인민혁명당과 애국적인민들은 오래고도 간고한 투쟁끝에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창건하였다. 공화국창건후 라오스인민은 비로소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여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인 새 라오스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라오스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다.

라오스인민혁명당의 령도밑에 이 나라 인민은 사회주의진보와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진보적인 사회제도와 정권이 강화되고 정치적안정이 보장되였으며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축성되였다.

오늘 라오스인민은 사회적안정과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사회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민긍청산에 힘을 넣고있다.

최근년간 이 나라에서는 교육, 보건, 농업, 림업, 도로건설 등 여러 분야를 추켜세우기 위한 계획들을 적극 추진시킨 결과 농촌주민들이 그 덕을 보고있다고 한다.

라오스정부는 민긍을 청산하여 2020년까지 덜 발전된 나라들의 대렬에서 벗어날 목표를 내세우고 노력하고있다. 올해에 농업 및 림업부문에서 생산량을 2.8% 늘여 농촌지역에서 민긍을 줄일것을 계획하고있다.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지난해 발전능력이 1만kW에 달하는 첫 태양열발전소를 세운 라오스는 2025년까지 국내전력수요의 30%를 자연에네르기로 보장할것을 계획하고있다. 2020년에 가서 약 95%의 주민세대가 전기의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전국각지에 수력발전소들을 건설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라오스인민의 앞으로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있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라오스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수립된지 44돐이 되는 날이다.

본사기자 김 수 진

서방의 내정간섭책동 배격

로씨야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가 최근 한 담화석상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의 내정간섭책동을 배격하였다.

그는 로씨야의 대내외정치로선과 립장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전망이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자국은 임의의 사태발전에서도 자기의 주권을 교수하고 국가의 안전과 공민들의 권리를 수호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는 절대로 서방나라들처럼 그 누구와의 대결을 추구하지 않을것이며 그 누구를 위협하거나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한 전해를 강요하지 않을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그러나 서방나라들에서 이러한것들은 거의 정상으로 되다싶이 하였다고 비난하면서 그는 《아랍의 봄》과 우크라이나사태를 그 실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로씨야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절대로 참견하지 않을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이스라엘의 핵무기고가 위협으로 된다고 주장

이란외무상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최근 이스라엘의 핵무기고가 중동과 세계에 실제적인 위협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중동에 있는 80개의 핵탄두의 전부가 전령도발자인 이스라엘의 수중에 있다고 까밝히면서 그러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계획을 계속 걸고들고있는데 대해 비난하였다.

그는 비밀리에 핵탄두개발을 추진하고있는 이스라엘의 책동에 새로운 국제적인 초점을 맞출것을 호소하였다.

세계적인 피난민수 증대

세계적으로 지난해에 전쟁과 무장충돌을 피해 살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수가 6 850만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290만명 더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19일 유엔피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가 밝혔다.

‖사회경제적발전을 위한 노력‖

산림조성사업, 문화유적과 유물 발굴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산림조성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의 알리지구 림업국이 최근 새로운 나무심기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이 실현되면 올해에 지구적으로 3만 4 000무의 산림이 조성되게 된다고 한다. 알리지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1 00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6만 5 000무의 산림을 조성하였다.

한편 중국 내몽골자치구의 적봉시 오한기에서 최근 청동기시대의 부락유적이 발견되였다. 유적의 총면적은 약 1만 5 000㎡에 달한다. 고고학자들은 그곳에서 3기의 직4각형모양의 무덤과 질그릇조각들을 비롯하여 여러 유물들을 발굴하였다.

발굴된 유물들은 청동기시대의 문화를 연구하는데 새로운 자료들을 제공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대륙횡단철도부설 계획실행에 착수

볼리비아와 브라질, 빠라과이 등 남아메리카나라들이 15일 태륙횡단철도부설계획의 실행을 위한 실무그루빠를 내오는데 합의하였다. 실무그루빠는 매개 나라의 철도부설조건을 료해하는 공동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페루의 태평양연안 일로항과 브라질의 대서양연안 쌍 빠울로를 련결하는 이 철도의 총길이는 3 800km, 년간 화물수송량은 1 000만t이상에 달할것이라고 한다.

전력증산목표

잠비아가 2030년까지 나라의 전력생산능력을 600만kW로 늘일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이것은 현존능력에 비해 거의 두배나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현재 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80%가 수력자원에 의거하고있으며 목표실현을 위해 풍력과 태양열, 지열 등 에네르기자원을 다각적으로 개발리용할것을 계획하고있다. 18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축산업발전

몽골에서 축산업발전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20일 이 나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지난해 전국적인 집짐승마리수는 6 600만마리를 넘어섰다. 이것은 세끼사양관리에 관심을 돌려 갓 낳은 새끼들이 죽는 현상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현재 나라에서는 축산업이 경제의 중요한 몫을 맡고있으며 인구의 약 40%가 여기에 종사하고있다 한다.

국가예산 발표

페니아정부가 14일 새 회계년도 국가예산을 발표하였다.

7월부터 시작되는 회계년도 예산은 제조업과 지역나라들과의 무역을 발전시켜 국가경제를 5.8% 장성시킬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경제 장성

스리랑카에서 1.4분기에 경제가 3.2% 장성하였다.

이 기간 농업, 공업, 봉사업 등 분야에서 성과가 이룩되였다 한다. 19일 이 나라 통계국이 밝혔다. 한편 르완다에서 1.4분기에 경제가 10.6% 장성하였다. 이 기간 농업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한다.

18일 이 나라 전국통계국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자본주의사회의 암담한 현실‖

칼부림범죄, 마약람용행위 성행

일본 요꼬하마시에서 21일 칼무림범죄가 발생하였다.

이날 한 주택구역에서 남성범죄자가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마구 칼질을 해대여 1명을 죽이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한편 일본에서 마약람용행위가 성행하고있다.

지난해 9월과 10월 이 나라에서 진행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130만명이상의 주민들이 마리후아나를 사용하였다는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그 전조사때에 비해 약 38만명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17일 이 나라의 한 의학연구기관이 발표하였다.

살림집가격 인상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1.4분기에 살림집가격이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11.8% 인상되였다. 10일 이 나라의 한 경제단체가 밝혔다.

부정부패행위, 마약범죄 성행

도이췰란드의 경제 및 금융부문에서 지난해에 7만 4 070건의 부정부패행위가 감행되였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28.7% 늘어난것이다.

그로 인한 손실액은 37억 4 000만€에 달하였다 한다.

12일 이 나라 경찰당국이 밝혔다.

한편 도이췰란드에서 지난해에 적발된 마약밀수 및 밀매범죄건수가 33만 580건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9.2% 더 많은것이라 한다.

최근 이 나라 경찰이 밝혔다.

총기류범죄 성행

스웨리예에서 지난해에 320건의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여 43명이 목숨을 잃고 140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부분 범죄들이 스톡홀롬, 페떼보르그, 말뫼시들에서 감행되였다고 한다.

최근 이 나라 텔레비죤방송이 전하였다.

날로 활발해지는 브릭스성원국들의 협조움직임

신흥경제국들의 협조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지난 4일 남아프리카의 프레토리아에서 브릭스외무상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브릭스성원국 외교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브릭스협조 10년동안에 이룩된 커다란 진전을 긍정적으로 총화하면서 지난해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브릭스협조를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공헌을 한데 대해 평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레로를 비롯한 국제적위협들과의 투쟁문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의 협조문제, 정보통신기술리용분야에서의 안전강화문제 등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들이 교환되였다.

대표들은 복잡다단해지고있는 현 국제정세하에서 브릭스성원국들이 조정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심화시켜나갈데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다.

또한 브릭스성원국들이 다무주의를 공동으로 견지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함으로써 세계의 정화와 안정을 수호해나갈데 대해서도 일치한 합의를 보았다.

잘 알려진것처럼 브릭스는 브라질, 로씨야, 인디아, 중국, 남아프리카 5개국의 영어표기로 된 때 나라 이름의 첫 글자를 딴 국제협조기구이다.

낡고 불공정한 국제질서를 반대하고 다극화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신흥발전도상나라들을 위주로 창설된 브릭스는 발언권을 높이면서 자기의 지위를 부단히 강화해나가고있다.

이번에 진행된 브릭스외무상회의는 기구의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회의에 참가한 중국외교부장 왕의는 브릭스성원국들은 폭넓은 전략적시야와 보다 힘있는 집단적힘, 보다 확고한 책임감을 보여주며 두번째 《황금의 10년》을 창조하는것을 계기로 5개국 인민들에게 보다 많은 행복을 마련해주고 세계정화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씨야외무상 라브로브도 브릭스협조 등 다무적제도에서 조정을 강화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함으로써 세계의 정화와 안정을 수호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 피력하였다.

정등파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다방면적인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브릭스성원국들의 활발한 움직임은 지금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로씨야와 인디아, 중국과 로씨야사이의 고위급대표들이 그를 잘 말해주고있다.

로씨야와 인디아사이에 진행된 수뇌회담에서 쌍방은 경제분제에 특별한 주목을 돌렸다.

자료에 의하면 두 나라의 호상무역액은 지난해에 거의 20% 장성하였으며 올해 첫 몇개월동안에는 약 40% 늘어났다. 두 나라 지도자들은 올해 10월초 인디아에서 진행되는 경제분제에 관한 수뇌자회의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를 상세히 토의하였다. 또한 에네르기분제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도 진행하였다.

로씨야와 인디아는 정치적으로 극단주의와 분립주의, 테로주의와의 투쟁에 관한 행동계획에서 두 나라가 일치성을 보장할데 대한 합의를 보았다.

로씨야대통령의 중국방문도 브릭스성원국들의 지위를 한층 공고히 해주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두 나라 국가수반들사이에 진행된 회담에서는 전통적인 친선리념과 전략적협조정신을 견지하고 쌍무관계를 새로운 수준에서 보다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들도 교환되였다.

날이 감에 따라 브릭스의 국제적지위는 높아가고있다.

브릭스성원국들은 방대한 령토와 인구를 가지고있으며 경제발전속도에서도 서방나라들을 릉가하고있다.

현재 브릭스는 서방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경쟁자로, 주요세력으로 확고히 등장하였다.

올해 7월에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부르그에서는 제10차 브릭스수뇌자회의가 진행되게 된다. 회의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브릭스성원국들이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해나가고있다.

언제인가 도이췰란드잡지 《슈데른》은 세계경제에서 브릭스가 노는 역할에 대하여 《중국은 세계은행, 로씨야는 후원국, 인디아는 세계회사, 브라질은 자원납입국의 역할을 놀고있으며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륙에로 들어가는 대문으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지역의 단합과 협조를 강화하고 다극화에로 나아가는 브릭스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본사기자 라 명 성

여러 나라에서 자연피해

폭풍

타이의 남부 푸케트섬에서 18일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를 동반한 시속 45km의 강풍으로 약 90채의 살림집이 뭇쓰게 되였으며 전주대들이 넘어지는 등 많은 물질적피해가 났다. 한편 이란의 레헤란시 남부와 동부에서 11일 강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시속 83km의 강풍으로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전주대와 나무들이 넘어졌다. 또한 버락이 치면서 불이 일어나 많은 면적의 밀밭이 타버렸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인디아의 여러 지역에서도 9일 폭우와 버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날 많은 비가 내리고 버락이 치면서 비하르주에서 27명이 목숨을 잃고 34명이 부상당하였다. 우따르 쁘라데쉬주에서도 폭우와 버락으로 20명이 죽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워 넘어졌다.

큰 불

딴마에서 최근 폭우에 의한 큰물로 피해를 입었다.

19일 이 나라 공보성은 현재 큰물로 몬주에서 학교와 살림집, 다리, 도로들이 파괴되였으며 7 400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고 밝혔다. 이것은 수십년래 가장 혹심한 피해라고 한다. 또한 전국적범위에서 20만ac(에이커)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였다고 한다.

산사태

방글라데슈의 랑가마티와 콕스 바자르지역에서 12일 산사태가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에 의한 산사태로 13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살림집들이 파괴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1810995(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딸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륜전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